

第143回國會 (閉會中) 第5共和國에있어서의政治會議錄 第6號
 權力型非理調查特別委員會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8月23日(火)
 場 所 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靑南臺現場調查問題에관한件
2. 全南道知事公館現場調查報告의件
3. 調查對象關聯者出國禁止要請回信에관한件

審査된案件

1. 靑南臺現場調查問題에관한件..... 2面
2. 全南道知事公館現場調查報告의件..... 23面

(14時27分 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第6次 本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존경하는 委員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本 委員會가 地方 現場 出張調查次 靑南臺 입구에서 調查를 하지 못한 채 上京하고 나서 近 1주일이 넘어서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政府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다시피 작금에 그렇게 발생한 일련의 國政調查權拒否 및 방해로 인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迂餘 曲折로 인해가지고 오늘에야 本 委員會를 開議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豫見된 일이기는 했지만 國民으로부터 수임받은 本 特委의 존엄한 國政調查權이 이렇듯 정면으로 도전받고 또 유린당하는 사태를 맞고 보니 참으로 경악과 또 어떤 경우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本 委員長은 우리 委員會 장래를 생각하고 또 새 시대의 도래를 믿고 있는 우리 國民의 기대와 염원을 생각할 때 참담한 심정도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調查妨害 策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5共和國 非理와 동일한 차원에서 앞으로 응징되어야 하며 이 또한 本 特委에 주어진 엄숙한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本 特委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연의 調查活動을 한 치라도 늦춰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후 우리 特委는 調查拒否 및 방해策동에 대해서는 즉각 本 特委에 주어진 모든 권한으로 강력히 대처함과 동시에 더욱 더 本 調查活動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委員 여러분! 本 特委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도있고 빠른 행보로 調查活動을 전개해 왔습니다.

다소간 日程上의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듯 初期부터 調查活動을 강행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빠른 時日內에 舊時代의 清算作業을 마무리 함으로써 새로운 民族精氣속에 全 國民의인 새 時代 建設을 이룩하고자 함이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의 第6次 委員會에서는 昨今の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럼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本格的인 調查活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여러 존경하는 委員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報告事項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紹介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立法調查官 趙南樂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 끝에 실음)

○委員長 李基澤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委員들 交替事項에 대해서는 報告로서 대신하

겠습니다.

그러면 當 特別委員會의 職員에 대한 人事異動이 있었읍니다.

저희들 委員會에 배속된 職員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專門委員에 趙在錫委員이 오셨읍니다. 立法審議官에 宋寶圭씨는 지금 海外出張中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배속되기 전에 다른 委員會에 있을 때 海外出張을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立法調査官에 趙南樂씨가 오셨읍니다.

(職員人事)

이상 紹介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委員人事부터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民主正義黨 金仁泳委員 일어나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泳委員 民主正義黨所屬 金仁泳委員입니다.

저희 黨會에 의해서 本 委員會에 뒤늦게 들어 왔읍니다.

先輩委員님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李相得委員 일어나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得委員 迎日郡出身 李相得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오랫동안 政府에 계셨던 李應善委員 일어나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應善委員 江原道 洪川出身 李應善입니다.

여러 委員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辛再基委員 일어나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再基委員 民主正義黨의 慶南 昌寧出身 辛再基委員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平和民主黨쪽에서 네 분이 새로 오셨읍니다.

李敏載委員 일어나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敏載委員 平和民主黨의 李敏載委員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金忠兆委員 일어나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兆委員 平和民主黨所屬 全南 麗水出身의 金忠兆委員입니다.

앞으로 5共和國 非理 剔抉을 위해서 微力이나마 바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梁性佑委員 일어나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性佑委員 서울 陽川甲區의 梁性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朴錫武委員 일어나서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錫武委員 全南 務安出身 朴錫武委員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이로써 새로 오신 委員들의 人事紹介가 끝났읍니다.

1. 青南臺現場調査問題에관한件

(14時39分)

○委員長 李基澤 이제부터는 議事日程 第1項 青南臺現場調査에관한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이 案件에 대해서는 委員長이 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委員 여러분들께서 그 經緯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읍니다.

지난 第5次 當 特別委員會의 決議에 따라서 행하여진 青南臺에 대한 現場調査가 政府側에 의하여 거절된 事案에 대하여 여러 委員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對策을 마련하기 위하여 議事日程 第1項으로 上程시켰읍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周委員 말씀하십시오.

○金東周委員 統一民主黨의 金東周委員입니다.

여러 委員님들과 또 우리 委員長 全國民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분노와 失意에 차있는 하나의 큰 事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8月12日 與野 우리 委員 다 같이 또 우리 本 特別委員會 全體 決議에 의하여 그날 調査活動에 임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調査委員會에 계속 더 몸을 담아야 되느냐 안 담아야 되느냐 하는 결심을 지금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青南臺가 분명히 調査活

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大統領別莊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公知事項입니다.

또 어떻게 해서 靑瓦臺가 靑瓦臺 執務室이 되었는지 또 執務室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지금 현재 全 國民의 民怨과 또 그로 인해가지고 靑南臺施設로 인해가지고 人災나 水災나 또 그 안에 豪華版施設 등을 執權與黨인 民主正義黨과 우리 4黨 合意下에서 엄연히 議事日程으로 合意가 되어서 調査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아는 상식으로는 靑瓦臺執務室이라 이라는 것 같으면 엄연히 우리 國民에게 알려져야 될 하나의 建物이라고 생각합니다. 密室靑瓦臺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또 저는 이 靑瓦臺나 現 政府가 소위 6 共和國이라는 이 政府가 大統領執務室이니까 한 3·4日後인 16日 招請形式으로 調査에 응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대관절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엄연히 우리가 16年만에 우리 國會가 이 國政調査權을 아주 우여곡절 밑에서 얻어낸 것입니다. 바로 民主化를 쟁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本委員이 野黨委員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與野 공히 분명히 이것을 行政府가 혹은 靑瓦臺가 우리 國會를 경시했고 즉 國會를 경시했다면 바로 國民을 모독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최소한으로 오늘 特委가 열린다 하기 때문에 政府側에서 靑瓦臺 責任者가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서 사실을 이야기 하고 國民에게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國會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特委活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調査를 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첫째는 靑瓦臺責任者가... 靑瓦臺執務室이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소위 豪華版 「골프」場을 두어야 되며 약 2,000坪 가까운 養魚場을 두어야 되며 世界 어느 나라 大統領執務室에 그런 데가 있다 말입니까?

저는 이번에 光州 道知事公館 證據湮滅事件에 대해서 議題가 다음에 있기 때문에 또 質疑를 하겠지만 고의적으로 이것은 그 안에 있는 構造 또 國民에게 관심이 가는 物件 證據品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國家財産이라 하니까 그 財産責任者인 總務處長官 또 그리고 실제 사용을 책임지고 있는 大統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政治的인 하나의 妙를 기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으로 靑瓦臺秘書室長 두 사람이 분명히 立會하여서 靑瓦臺 모든 靑南臺의 施設은 總務處長官으로부터 報告를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날 모든 行爲에 대해서는 靑瓦臺에서 公式的인 사과가 있고 난 이후에 靑南臺를 國政調査에 委任해야 된다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李聖浩委員 말씀하세요.

○李聖浩委員 民主正義黨 李聖浩委員입니다.

지난 우리 特委가 8月11일부터 12일까지 調査活動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12日 靑南臺訪問問題가 이와같이 지금 金東周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한편 그때 또 情況이 우리가 짊고 넘어가야 될 情況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1日 여러 가지 靑瓦臺와의 관계로 해서 靑瓦臺側과 16日이후에 調査活動을 진행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으나 그것이 4黨 幹事間에 정확히 合意點을 못봐서 결국 그와같은 事態가 벌어진 것을 우리는 어느 측의 의도적인 措置라고만이 봐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를 提起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國會의 主要權限인 國政調査에 대한 重要性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具體的인 調査活動을 전개할 때 우리가 그 調査對象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11日 겨우 靑瓦臺에 通報했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로서도 불찰이었다 하는 것을 本委員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또한 國會가 國民의 代表機關이듯이 또 大統領도 國民이 직접 選出한 憲法機關이란 것을 우리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번에 걸쳐서 議事進行으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그러한 私企業體를 간다든가 어떠한 데를 갈 적에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가는 것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脈絡에서 볼 때 大統領의 執務場所를 우리가 보겠다고 할 때 사전에 그 쪽과 협의할 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日 간다고 할 때에 16日 이후에도 좋다 하는 그 쪽과의 얘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그 時間的인 우리 調查活動의 時間的인 간격으로 보아서 그렇게까지 16日에 가는 것도 늦지 않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우리가 靑南臺에 갔을 때 사실 靑南臺의 責任者도 아닌 哨兵과 우리 國會議員하고 對話한 것처럼 報道되는 것을 보고 같은 調查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委員長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라도 靑瓦臺側과 협의를 해서 그 調查活動을 속히 시작하게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調查活動對象에 넣었던 日海財團問題만 하더라도 하루속히 우리가 日海財團의 調查活動을 전개하도록 委員長은 책임을 지시고 추진해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徐委員 말씀하세요.

○徐廷華委員 조금 전에 金東周委員하고 李聖浩委員이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지난번에 國會議員會活動으로서 처음 現地調查를 하고 오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석연치 않았던 몇 가지 점을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金東周委員께서 얘기할 때는 議事日程이 완전히 합의되어가지고 靑南臺를 포함해서 現地調查를 다녀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읍니다마는 분명히 議事日程은 4黨間의 합의에 의해서 짜여지게 마련이고 그와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議事日程에 4黨의 합의가 없었고 그리고 그날 調查日程 출발하는데 「버스」에서 나누어준 日程表에 보면 靑南臺事項이 그대로 時間別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합의없이 이렇게 들어간 이 사실이

專門委員의 착오인지 아니면 委員長의 합의없는 독단적인 행동이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靑南臺 앞에까지 갔다가 歸路하는 도중에 文義面地域에 왔을 때 地域住民들이 示威를 하는 관계로 해서 調查團 「버스」가 출발을 못하고 2時間40分 동안 現地에 잡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住民들의 示威事項이 불시에 調查團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와같은 행동과 또는 그 地域住民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존경하는 우리 委員長의 個人秘書가 그 地域出身이라고 해서 2·3日 전에 그 地域에 내려가서 地域住民들을 사전에 조종하고 懇談會를 유도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을住民의 民怨과 그 懇談會의 必要性 與否를 떠나서 계획적으로 國政調查團인 國會議員을 인질로 삼아서 懇談會를 開催하도록 背後操縱하였다면 이는 示威煽動罪나 公務執行妨害罪를 떠나서 委員長과 野黨의 同僚委員이 늘 주장하고 있는 신성한 國會機能에 대한 심각한 挑戰行爲라고 볼 수 있습니다.

委員會를 대표하고 委員會活動을 보장하여야 되는 委員長의 秘書가 國會議員 人質劇을 사주하고 委員會가 決議한 議事日程을 무시한 行爲는 法の 無知에서 비롯된 행동인지 또는 5共非理調查特別委員會를 委員長의 個人 私設 研究所 정도로 생각한 오만방자한 행동인지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事件을 背後操縱한 個人的 刑事處罰은 물론이거니와 委員長의 指示에 따른 秘書의 행동이었는지 또는 단순히 委員長과 事前協議한 정도였는지 事實與否가 규명되어야 한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며 委員長은 이에 따라 應分の 責任을 져야 할 것입니다.

委員長은 靑南臺 訪問強行과 人質事件의 關聯性 및 事件의 경위에 대해 자세한 해명을 해 주기 바라며 委員長秘書의 國會議員人質劇 背後操縱 事實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趙昇衡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基澤 委員長問題가 있어서 먼저 解明을 하고 다음 會議進行으로 넘어가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 위원께서 發言을 하셨는데 金東周 위원께서는 靑南臺事件을 비롯한 자기의 견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의 答辯이나 解明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李聖浩 위원께서 몇 가지 本委員會의 會議節次에 하자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간추려 적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幹事會議가 마치 완전합의를 본 것처럼 해서 地方 現場調査出張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그 「워앙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여기 速記錄도 다 있습니다마는 굳이 幹事會議를 제가 여기에서 解明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幹事會議에서 어쨌든 간에 그것이 拘束力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本全體會議에서 地方 現場調査出張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 전체가 決議했느냐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幹事會議 部分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委員長이 解明하기 보다는 그 당시에 앉아 계셨던 幹事 여러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다른 幹事께서 解明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全體會議에서는 분명히 그 당시 다섯 곳 다시 말해서 日海財團 靑南臺 飛龍臺 그 다음에 光州地方靑瓦臺 全前大統領 父母墓 이렇게 다섯 곳으로 결의를 본 것으로 이 사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委員長의 獨斷이냐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委員長이 獨斷한다고 해가지고 따라오실 분들입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節次에 靑南臺가는데 事前協議를 왜 안했느냐 靑南臺가 뭐 하는 곳입니까? 靑南臺는 大統領別莊이 아니었습니까? 光州地方靑瓦臺 飛龍臺나 우리는 다 같은 줄 알았어요. 달리 생각질 않았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합디다마는 거기 大統領執務室이다 그러면 執務室이라고 했으면 民正黨에서 靑南臺를 調査對象으로 올릴 때에는 어떻게 別莊으로 올렸습니까?

執權與黨도 하물며 別莊으로 알았는데 더군다나 남이 다른 一般國民이 어떻게 그것을

大統領執務室로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光州도 되고 飛龍臺도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연락만 하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事務處에서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우리는 調査機關입니다. 저는 法律을 잘 모릅니다마는 공교롭게도 4黨幹事中에서 어떻게 세 분이 法曹人 出身이 있습니다. 金重權委員 趙昇衡委員 그 다음에 姜信玉委員 이렇게 세 분이 法曹人 出身이 있습니다.

우리가 調査하러 간 것은 現場調査였습니다. 분명히 現場觀察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旅行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調査하러 갔습니다. 調査는 現場檢證과 같은 것이다 現場檢證은 시간을 다투어서 갈 필요성도 있다 그런 말씀도 하대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節次上的 문제가 우리 委員會의 調査決議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節次가 완벽하게 꼭 잘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로서 우리가 論議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調査機關에서 調査를 간다고 하면 다른 大統領別莊과 동일선상이라고 한다면 靑南臺도 의당히 나는 調査에 응해 주어야 된다 하물며 저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보다는 여러 곳에서 電話를 많이 받았고 交涉도 많이 받았읍니다.

나는 委員會의 우리 체통을 존중해서 우리 日程을 變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公式로 靑瓦臺에서나 政府에서 日程變更을 요청하면 이 委員長으로서 公式로 委員會에 전달을 해서 委員會의 全體意見에 따르겠다 나 그렇게 答辯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大邱에서 자고 아침에 大田을 출발하고 靑南臺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靑瓦臺 政務首席秘書官이 저한테 전화가 왔고 또 16日 靑瓦臺 秘書室長이 오찬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靑南臺와서 보면 어머니 그런 提議 그것 正式提議나 正式提議다 그러면 나는 委員會에 전달하겠다 그러나 내 개인 私見으로는 어떻게 調査對象機關에서 초청을 調査官들을 調査委員들을 초청한다는 것이 이것이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얘기나 나 거기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私見이었고 大邱를 떠나기 전에 「버스」안에서 분명히 여러 분들 다 계시는데 제가 그대로 報告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보태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니까 우리 飛龍臺에 가서 飛龍臺까지 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靑南臺…… 그 다음 「코스」가 靑南臺니까 그 靑南臺가는 문제를 議論을 하자 그 飛龍臺 끝나고 우리 全體會議했습니다. 意見一致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코스」도 뛰어넘자고 하는 委員도 있었고 全體 우리가 決議가 되어 있으니까 議事日程이 確定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리로 가자고 하는 委員도 있었고 그래서 靑南臺로 갑니다.

與黨幹事하고 주고받은 얘기는 이 公式席上에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黨을 떠나서 이 時代 이 나라 한 政治人으로서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가 調査의 使命이 무엇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全體의 日程에 맞추어서 비록 거기에서 총구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쫓겨났다 치더라도 나는 잘 갔다 왔다 우리는 우리 決定대로는 비록 「비토」 당했지만 갔다 온 것이 나는 순리이고 순서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생각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그에게 幹事會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國調權이 세 군인의 총구에 의해서 짓밟힌 데 대해서 적어도 靑瓦臺에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동시에 사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論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委員長이 靑瓦臺와 좀 協議를 해 볼 用意가 없느냐 하는 문제이었습니다. 委員長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저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동안에 제대로 똑 떨어지는 그런 그 委員長의 역할이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제 어제 며칠 전에 幹事會議에서 이 靑南臺 부분을 論議했을 따름입니다.

다음에 제가 秘書를 통해서 주민들을 선동해서 우리 委員들을 인질로 삼아서 그래서 책임을 좀 져야 뭐 刑事的 책임까지 져야 안 되겠느냐 좋은 얘기입니다. 그에게 幹事會議에서 이 문제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金重權 民正黨 幹事보고 抗議를

했습니다. 與黨에서 이런 얘기를 公開적으로 했었는데 여보 어떻게 사실을 確認도 안해 보고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경위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사내려가기 전에 우리 秘書는 淸州出身입니다. 그래서 거기가갑지요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 며칠 전에 靑南臺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 이틀째 한다 3일째 한다 할 때에 내가 우리 秘書보고 심히 나무랐습니다.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靑南臺가 우리 國會의 調査對象이 되어 있는데 거기쯤은 한번 갔다 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 무엇 때문에 「데모」하느냐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도 모르고 맨날 사무실에서 서류만 만지고 있느냐 제가 좀 우리 秘書를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그 날까지 아마 住民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할 때인가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내려가가지고 정확한 狀況을 파악해 오너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나는 내려간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事務室에 딱 갔더니 事務室에 딱 나와있어요. 자네 내 말도 안 듣고 現場에 안 내려 갔느냐! 어제 저녁 電話를 걸어 봤더니 어제 저녁으로 그 「데모」가 끝나고 그래서 내려가 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안 내려가고 앞으로 現場調査 하러 가게 되면 그때 하루 이틀 전에 제가 가서 그 사정을 調査를 좀 하지요.

얘기만 그렇게 하고 저도 잊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은 경위는 이게 전부인데…… 우리가 바로 靑南臺 밑에서 점심을 午後 두 시간이 몇 시간에 우리 委員들이 자셨습니다. 참 배도 고프고 했지요. 점심을 먹고 靑南臺…… 「버스」를 일부는 탔습니다. 우리 委員들 가운데 일부는 타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우리 秘書들이 住民代表라면서 세 사람인가를 제 앞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버스」에 벌써 委員들은 타고 있지요. 우리가 그런 住民代表들을 한 두번 만났습니까? 만나면 30分 한 時間 걸리겠지요. 우리 全體 調査委員들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서서…… 그때 제 주변에도 여러 사람이 있

있어요. 선 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代表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겠소 날씨는 이렇게 더운데 우리가 靑南臺까지만 우리 본래의 目的대로 거기에 들어 가지면 더 좋고 못 들어가지면 안 들어 가지는 대로 일단 靑南臺까지를 끝내고 만날 수 있느냐…… 저는 연못가에 동네가 있는지 내 난생 처음으로 갔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그러면 靑南臺 끝나고 내려 오시면서 반드시 우리 住民代表들을 만나줘야 됩니다. 그럼 장소가 있소 그랬더니 禮式場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면 禮式場 같은 데서 만나면 좋지요. 거기서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時間上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靑南臺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바로 淸州로 빠지는 길인지 모르지만 「아스팔트」가 그 갈림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바로 오게 되어 있었고 하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어 있었는데 왜 우리가 그 동네로 다시 갔느냐! 取材陣들이 그 靑南臺 앞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동네 「버스」로 먼저 내려가가지고 電話라도 빌려가지고 送稿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取材陣들이 그 동네에서 기다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아니었으면 住民들 하고 만나는 것도 잊어버리고 바로 올라올 뻔 했지요. 그런 取材陣들이 있기 때문에 取材陣들 하고 같이 합류를 해서 오던 길로 와도 괜찮다고 해서 그 동네를 들른 것입니다. 들렀더니 그런 事態가 벌어졌읍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얘기를 지금처럼 상세히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幹事會議에서 제가 며칠 전에 金重權委員한테도 했읍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가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 靑南臺 그 주변에 있는 住民들을 特委 委員長인 李基澤議員이 調査하러 가기 전에 秘書를 보내가지고 선동을 해서 했다 하는 것이 「라디오」로 나오더라 이래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도 불렀어요. 야! 이게 내가 解明이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사실대로 나 한테만은 네가 이야기해라 그랬읍니다. 그랬더니 그 秘書얘기가 아니

다 있었지 않습니까?

食堂에 점심 자시고 나올 때 代表들이 일부로 禮式場이 있는 「데모」하던 그 面 所在地에서 代表 여섯 명이 일부러 점심 자시는 食堂까지 가서 만나려고 했지 않습니까? 만나자고 하니까 지금 「스케줄」 관계로 도저히 안 되니까 靑南臺 이 日程을 끝내고 만나자고 해 가지고 禮式場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委員長이 禮式場에서 만나자고 했지 그 住民代表들은 現場에 밥 먹는 장소에서 식사 끝나면 거기에서 자기네들 사정을 얘기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住民들이 매일 그 며칠 전에도 「데모」를 하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가서 調査를 하려니까 調査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 秘書가 가서 調査했읍니다. 調査 당연히 해야지요. 안 가면 저라도 시켜야지요. 現場에 가서 調査해 보라고…… 그것 갔읍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誤解를 하듯이 선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뭐 이 세상 누구를 믿겠읍니까마는 저를 그러한 치사한 政治人으로 여러분들이 취급하지 마세요. 나는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秘書라도 그 짓을 했다면 나무라려고 내가 秘書보고 물었읍니다. 우선 代表만 하고 네가 事情만 들으면 되지 선동을 했다고 상대방에서 그러니 이것 무슨 얘기냐? 그럼 정말 根據라도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代表 여섯 명만 모이라고 하는 것은 그 面長 그 동네 靑年會 會長이 우리 그때 孫周恒 副總裁하고도 가서 말도 잘 하고 그럴겁니다. 靑年會 會長 이 사람들인데 자기가 여섯 명 代表들만 아무리 바쁘고 골치도 아프고 또 다음 日程도 있고 하니까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소용없다 말이지 代表들만 모여서 당신네들이 꼭 할 얘기 있으면 이번 기회에 올 때에 委員長이나 各 黨 代表들 보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하십시오. 그것은 그 現地의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參與黨綱에서 자꾸 얘기를 한다면 저도 또 그 다음 할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말이지 뭐 보면 뭐 보았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誤解도 또 확대될 수

도 서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委員長의 良心을 걸고 결코 이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解明 말씀 드리고 나는 이 시간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秘書가 혹시 그랬을지도 萬의 하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추궁을 해 보겠다 하는 것으로서 解明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金 炫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基澤 金 炫委員 말씀하세요.

○金 炫委員 新民主共和黨 金 炫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靑南臺問題에 대해서 다시 한번 舉論을 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靑南臺가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제가 幹事 네 名중의 한 名으로서 틀림없이 大統領別莊으로 해서 그 당시 民正黨은 同意를 해서 44件 내용중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決定을 낸 뒤에 어느 새인지 모르게 저 자신도 모르게 執務室로 바뀌었고 또 하나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國政調査權을 가지고 갔는데 제일 첫번에 갔던 全南道廳公館問題는 틀림없이 이번에 제가 現場에도 다녀왔듯이 많은 物件을 바깥으로 담박으로 내던진 故意的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갔던 飛龍臺는 그 당시에 朴總長이 나와서 1層은 되는데 2層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 이상 拒否를 했고 또 어딘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上部에 계속 電話를 걸어서 한 시간 후에야 어쩔 수 없이 報道陣을 넣지 않는다는 그런 條件下에서 양보를 했고 세번째 갔던 靑南臺는 그나마 門 앞에서 制裁를 당한 사실 세 가지로 볼 적에 이는 당연히 政府側에서 故意性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히 이번 全南道廳을 다녀오면서 한 가지 얻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면 88年3月29日 內務部長官 公文에 보면 全國 貴賓室 및 什器類管理改善指針에서 보면 公館이라고 해서 여섯 개가 있어서 靑南臺는 執務室로 빠져있는 사실이 없이 그대로 公館으로 틀림없이 公文上에 明記가 되어 있습니다. 한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公館

다섯 군데중에 세 군데를 갔을 적에 한 군데에서는 물건을 치우는 역할을 했고 두번째에서는 1層은 되는데 2層은 안된다 또 세번째 가서는 숫제 들어오지도 말라 하는 門前薄待라고 할까요. 그것도 조금 더 심한... 물론 軍人들이야 그 자세가 정자세라고 하지만 총을 대는 역할까지 해가면서 신성하게 國民의 알 權利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역할은 다분히 故意性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政府側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빠른 時間內에 靑南臺를 開放해서 國民들의 알 權利를 또 疑懼心을 빨리 풀어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부터 우선 결정을 하는 것이 原則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趙昇衡委員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李聖浩委員께서 몇 가지 法律上으로나 또는 條理上으로 전혀 이해가 안되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委員長의 적절한 해명과 그에 대한 答辯이 계셨습니다.

아뭏든 기왕에 發言權을 얻었기 때문에 그 점을 명백히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靑南臺에 가는 것은 幹事會議에서 합의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간다고 하는 그런 論理는 전혀 말이 틀립니다. 왜냐 하면 全體會議에서 당시 2泊3日間の 期間으로 이 다섯곳을 갔다 오기로 이렇게 決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幹事會議에서는 1泊2日이라고 해서 全體會議結果를 오히려 줄였습니다. 이것은 幹事會議가 不法한 짓을 한 것입니다.

또 靑南臺를 가니 안가니 未合意한다고 하는 것은 幹事會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全體會議에서 2泊3日間으로 갔다오자고 決議했으면 幹事會議에서 적절하게 그 時間配分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몰라도 靑南臺를 간다 안간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8月11일에 비로소 靑瓦臺에 靑南臺에 간다는 것을 通報했다 이것은 우리 特委의 專門委員의 불찰로 그렇게 늦게 靑瓦臺에 通報를 했으니 靑瓦臺로서는 준비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부득이 16日로 調査를 왔

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李委員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도 결코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調査라고 하는 것은 調査者가 있고 다음에 被調査者가 있습니다. 調査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靑南廳이라고 하면 靑南廳을 管理하는 사람들이 調査를 받는 被調査者들입니다. 調査를 하는데 미리 通報를 해서 우리 가도 좋을가요 예 오십시오 해야 調査者가 被調査者를 調査한다고 한다면 이런 調査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調査團이 調査를 함에 있어서 被調査者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秘密裡에 급작스럽게 습격을 해서 調査를 해야 할 필요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調査團이 被調査者에게 通報하는 것은 調査團이 調査團의 調査便宜上 아무래도 미리 通報를 해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에 미리 通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李委員께서는 그 본말을 전도해서 通報를 해야 하고 상대방이 양해를 해야 우리가 조사를 갈수 있는 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고 또 法律常識上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까 大統領도 國民의 代表機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차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의차리고 될 수 있으면 해야겠지요. 그러나 공과 私... 예의는 私입니다. 공과 私는 분명히 가려야 하고 또 調査者가 被調査者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런 個人的인 예의를 차려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의를 차렸읍니다. 11日 通報를 했어요.

그런데 靑瓦臺側에서는 秘書官을 통해서 16日 招請形式으로 午餐이나 하면서 같이 靑南廳를 구경하시지요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무례한 소리입니까? 國民의 代表 그것도 한 두사람도 아니고 特委입니다.

調査團입니다. 그런 사람앞에 調査者에게 被調査者가 招請을 할터이니 그 때 午餐이나 하면서 봐 주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君王이 國民을 내려다 보는 그런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와같은 행동도 우리가 그 동안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靑瓦臺側에서 그런 취지를 다 알고 자기네들의 잘못을 미리 느껴서 지금쯤은 우리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모임에 모였습니다.

조금 전에 金重權 民正黨 幹事에게 그 부분을 물었더니 바빠서 그런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극히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도 이마만큼 참고 그것을 기대하고 될수 있으면 與野間에 충돌없이 이 調査活動을 해 나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民正黨委員들의 發言의 취지라든지 發言하는 동기라든지 또는 靑瓦臺에서 아무런 조치가... 저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陳謝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法律違反의 점에 대해서는 끝까지 法律的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陳謝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좀 고려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우리 野 3黨끼리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게 이와같은 發言들이 있었고 또 靑瓦臺의 조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靑南廳를 가 가지고 조사를 못한 것은 또 被調査者에게 우리가 12日 간 다라고 11日 이미 通報를 했습니다 24時間前에...

그렇기 때문에 被調査者는 調査者에게 모든 조사를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國調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檢證을 방해하면 처벌한다고 되어 있어요. 檢證을 방해... 우리가 지금 檢證하러 갔는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조치한 것은 이것은 방해입니다 분명하게 檢證妨害예요.

전혀 우리가 通報도 없이 가 가지고 우리가 못 들어갔다 하면 그것은 靑瓦臺에서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아까 金 炫委員께서는 故意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현도 저는 불만입니다. 분명히 故意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11日 通告했고 12日 우리가 간다 그런 데 靑南臺를 열어주지 않았다 라면 이것은 방해한 것이 분명하고 방해함에 있어서 故意가 명명백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마당에서 民正黨의 태도가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處理方法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孫周恒委員 말씀하세요.

○孫周恒委員 本委員이 野團에 소속해서가 아니라 우리 民主黨의 金東周委員이나 혹은 共和黨의 金炫委員이나 조금 전에 우리 平民黨의 趙昇衡委員이 대충 말을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제가 좀 보완을 한두가지 하면서 제 나름대로 結論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報道를 보니까 共和黨의 金鍾泌總裁하고 盧大統領하고 靑瓦臺에서 만나서 말을 하기를 5共非理特委活動의 범주에 대해서 盧泰愚씨는 분명히 聖域이 없다는 말을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聖域이 있을 수 없다... 그래 나는 지금 생각할 때에 지난번 靑南臺라고 하는 데를 다녀 온 調查團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참 담담하기 끝이 없습니다. 靑南臺가 대체 무엇인지 靑南臺가 조금 전에 與黨委員은 大統領執務場이라고 하는데 大統領執務場인지... 그곳에서 가령 1週日에 한 사흘정도는 靑瓦臺에서 大統領이 執務를 하고 나머지 한 2·3日동안은 靑南臺에서 하는 것인지... 그 동안에 國民한테 言論이나 혹은 公式發表를 통해서 靑南臺가 이런 곳이나 이렇게 알아라 하는 것도 없었고 그저 소문으로만 金斗煥씨 때에는 金斗煥씨 別莊으로 그분이 末年에 거기서 아주 영원히 휴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데다 이렇게 소문이 났고 그리고 이 근래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靑瓦臺가 위기에 봉착하면은 第2의 靑瓦臺로서 거기 가 執務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알려져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第2의 靑瓦臺로서 등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調查團의 입장으로서 거기 入口에 못들어갔을 때 그것도 완전 무장된 特殊部隊에 의해서 저지되었을 적에 정말 참 한심하기 끝이 없다.

조금전에 그당시 그날 몇 時間전에 靑瓦臺에 있는 崔무엇인가 政務首席秘書官인가 하는

친구가 그때 당시 우리 調查團이 전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公式적으로 우리 室長께서 몇 月 며칠날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할터이니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 방자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로 이 사실을 盧泰愚大統領이 알고나 있는지 정말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流言이겠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盧泰愚씨 家族 몇 사람이 靑南臺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말도 들리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國民들이 조금 전에 우리 金東周委員이 말하는 바와 같이 골프場이 있다 낚시터가 있다 사냥터가 있다 요트場이 있다 水泳場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전부 다 호화판이라는 것이예요.

나는 이러한 사실이 이 6共和國의 政權을 맡고 있는 盧泰愚大統領이나 民正黨側이 술선 수범해서 오히려 이것을 국민한테 公開해가지고 사실은 이것은 全政權에서 만들어진 非理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明明白白하게 國民한테 알리는 것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자꾸 은폐하고 이것을 회피하고 이것을 여러가지 수단에 의해서 저지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오히려 盧泰愚大統領 입장을 곤경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과잉충성하는 5共和國 내지 그 이전의 政權의 쓰레기같은 것들이 그 주위에 머물러가지고 오히려 6共和國을 더 욱되게 하고 더욱 「이미지」나 모든 것을 더 나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나는 참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靑南臺를 지어준 豫算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말 듣기로는 總務處에서 이것을 管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政府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總務處에서 管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立法調查官한테 물어봤더니 靑瓦臺管掌은 總務處에서 한단니까 그렇다면 靑南臺도 靑瓦臺 一部分이면 總務處에서 管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管掌하는 것을 그당시 議事日程에 넣기 전부터 진지하게 말이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그 議事日程에서 빠졌다고 하면 오히려 그당시 시비는 그것으로 그쳤던 것 아니냐 다 合意된 사항을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國民들한테 알려야 할 혹은 國民들이 알아야 할 權利를 완전히 봉쇄 내지는 저지했다고 하는 이 책임을 나는 靑瓦臺 秘書室長을 맡고 있는 洪某씨의 우리의 決議에 의해서 분명한 해명과 謝過를 받지 않을 수 없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總務處長官한테 꼭 좀 내가 個人的으로... 우리 委員長이 書面으로 하든지 電話로 하든지... 대체 靑南臺가 總務處所管인지 總務處에서 管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與否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資料要請을 했습니다. 資料가 안나와 있어! 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애 靑南臺가 이렇게 資料도 안내주어 못들어가게 하는데 이것이 뭐야! 대체 이게 무슨 伏魔殿인데 그러느냐 國民들이 알 權利가 있어! 최소한도 어떤 아주 극비의 비밀 지역같은데 이런 이런 이유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하면 우리들이 이것을 납득 못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처음부터 못들어가게 해!

더구나 그 軍인들이 말하기를 이곳은 作戰地域이다 하면서 저지를 했고 완전 武裝한 軍인이야! 冒頭에서도 말을 했지만 과연 靑瓦臺를 방어하는 것은 그것은 國家保衛의 차원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과연 우리 調査團이 갔는데 住民들 말 들어보면 이제까지는 正門을 완전 武裝한 軍인이 지켜본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 調査團이 갈 적에 완전 武裝한 軍인이 正門을 저지한 이유는 뭐냐?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정말 靑瓦臺의 秘書室長이 우리 決議에 의해서 이 장소에 와가지고 해명도 하고 陳謝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特委의 決議에 의해서 추후에 靑南臺는 가봐야 된다. 우리가 발로 걸어가야지 무슨 오찬에 초청받아서 가야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하여튼 全南道知事 官舍問題나 다른 문제는 다음 순서가 되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만은 陳謝와 아울러서 해명을 우리 決議로써 받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荃澤 張慶宇委員 말씀하세요.

○張慶宇委員 張慶宇委員입니다.

우선 우리 調査特委가 여러번 수차 우리 委員들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이성적이고 또 냉정한 가운데서 우리 委員會가 運營도 되고 調査活動이 전개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人間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격양도 되고 흥분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성을 찾고 냉정한 가운데에 우리 調査活動을 해야지만이 國民이 정말 알아야 할 權利와 國民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 委員會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소 격양도 하셨을 수 있을 테고 흥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선 委員長께서 본인에 관련된 해명을 하시면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李聖浩委員께서 말씀하신 幹事의 合意없이 했었다는 말씀은 李聖浩委員님이 하신 것이 없고 그 점은 徐廷華委員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是正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선 幹事合意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本會議 日程도 原則적으로 하면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서 議事日程이 마련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日程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交涉團體代表들간에 總務들간의 합의에 따라서 議事日程이 마련되고 거기에 대한 追後議決을 運營委員會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바로 政治의 慣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幹事會議을 중요시했고 幹事들의 결정을 따라왔던 것도 우리 委員會의 그동안의 運營의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분명히 5次會議에서 5件的 現地調査의 대상을 결정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議事錄을 檢討해본다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11일부터 13日 사이에 全南知事公館 陝川臺城 飛龍臺 日海財團 靑南臺 등 다섯 곳을 現地調査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어느 곳을 먼저 어떤 순서로 무엇부터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은 결정한 바가 없습니

다. 다만 11일부터 13日 사이에 다섯 곳을 우리가 現地調査한다는 決議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決議한 다음날 10日에 幹事들간에 모여서 바로 이러한 순서를 정하는 幹事會議가 있었읍니다. 본인이 바로 金重權 우리 幹事를 대신해서 幹事會議 모임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日程을 잡아야지 되고 가급적이면 11日과 13日 사이에 하되 우리 調査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日程을 잘 잡아서 한다면 더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더 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幹事들간에 이런 내용에 의해서 合意에 의해서 소위 1泊2日의 議事日程을 만들어서 調査를 떠났던 것도 여러분이 다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同僚委員의 말씀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안 되었읍니다마는 金 炫委員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民正黨委員들도 그것이 靑南臺가 大統領別莊으로 해서 調査對象의 案件으로 합의한 바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民正黨委員들이 이것이 바로 大統領別莊이기 때문에 調査對象案件으로 合意한 것은 아닙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靑南臺라는 것이 아까 金東周委員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호화스러운 곳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災害가 人的災害나 또는 기타 災害나 여러가지 疑問事項들이 있었기 때문에 調査對象에 합의할 것이지 이것이 別莊이기 때문에 合意를 했다 안했다 하는 것은 바로 문제의 本質을 벗어난 것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民正黨 全 特委委員들이 靑南臺를 調査對象의 案件으로 合意한 것도 바로 疑惑事件들은 철저히 파내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合意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現地調査對象의 案件에 넣은 것도 그것이 당연히 調査對象案件이면 現地に 가보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合意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다음날 바로 幹事會議 順序日程을 잡기 전에 本委員이 바로 이 얘기를 했읍니다. 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執權黨이다 보니까 靑瓦臺側에서 연락이 왔는데

靑南臺管理를 例를 들면 아까도 우리 金 炫委員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光州에 있는 全南知事公館이라든지 또 飛龍臺라든지 각 그곳이 大統領의 때에 따라서는 숙소 執務室으로 이용되더라도 管理하는 사람이 그때그 때 전부 다른 것입니다. 例를 들면 우리 光州의 公館은 全南道廳에서 管理를 하고 있고 飛龍臺는 軍人福社訓練團인가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다른데 과연 靑南臺는 어디서 管理하고 있고 靑南臺가 과연 어떤 식으로 運營 管理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았다니 大統領 靑瓦臺執務室의 일부라고 그러는데 靑瓦臺側 사정에 의하면은 이번 주보다는 다음주에 여러가지 行事關係가 있으니까 16日정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幹事들간에 協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제시를 1次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충분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선 本會議에서 일단 결정했으니 감시다 해서 떠났던 사실도 이미 주지하고 제신 바입니다. 그러면 이런 日程에 의해서 일단 떠났던 우리 調査過程의 문제는 光州에 내려가는 그 기차 도중에 우리 委員長님께서 직접 專門委員을 불러서 자 우리 가고자 하는 곳의 日程을 충분히 확인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의 과정이 있었읍니다.

그런 가운데 “靑南臺도 충분히 連絡했느냐” 했더니 우리 專門委員 말씀이 “아직 미처 靑南臺에는 해당 管理部處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連絡이 안된 것 같다” 했더니 “빨리 連絡하도록 해라.” 해서 최초의 連絡이 되고 光州에서 그 答信을 받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도 주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大邱에서 올라 올적에 委員長님이 아까 여러가지 事項을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經緯에 의해서 靑瓦臺側의 秘書官에 의해서 通話되었던 사실도 우리 特委委員들에게 전달을 이미 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飛龍臺에서 우리 與野 모든 委員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한 非公開懇談會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靑南臺의 訪問이 바로 해당 相對機關인 靑瓦臺側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보다는 다음 日程을 잡아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 서로 協議해서 다음 日程을 잡는 것이 어떨나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靑南臺에 到着했을 때에는 이미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이미 豫見되었고 豫想되었던 일입니다. 그런 狀況下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들어가자 안가자 또는 바로 그 哨兵이 지키고 있는 앞에서 우리 委員들이 權威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特委自體의 權威도 있는 것입니다. 國民의 代表機關이고 우리가 議決한 곳인데 우리가 당연히 품위를 지켜야 하겠지요. 거기에 나온 일개 哨兵을 우리가 상대해서 들어가느냐 못들어가느냐 따질 수는 없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同僚委員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國會에 들어가서 별도의 案件으로 해서 충분히 따질 수도 있는 것이다. 방금 孫周恒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哨兵 完全武裝한 軍人에 의해서 우리가 쫓겨났니 안쫓겨났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문제 자체는 별도로 해서 國會에 올라가서 全體會議에서 별도의 案件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우리가 이 哨兵에게 쫓겨났다 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도 되지 않을 뿐더러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도중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물론 흥분된 탓도 있으시겠지만 버스 안에서 이제 우리가 쫓겨나오는 이판에 무슨 調査가 되겠느냐 日海財團 日程 取消하고 國會로 올라 가자 이런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그 당시에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靑南臺事件을 매우 調査를 重要親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별도의 案件으로 이미 日海財團 現場調査에 대해서도 案件으로 決議한 바 있고 이미 事前에 日海財團에게도 調査가 겠다고 通報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잡혀진 日程이니 그것을 取消할 수가 없다 그곳에 가야지 된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우연의 일치입니다마는 저희가 國會에 到着되었을 때 제가 우연히 우리 事務處 專門委員室에 들어갔더니 바로 현지에서 제가 電話를 職員이 받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그 당시 시간이 10時30分인데 日海財團側

에서 電話가 왔읍니다. 우리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通報가 없다. 어떻게 된 것이냐 오시는 것입니까 안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물론 國會特委의 議決에 의해서 결정된 調査活動 매우 중요하고 우리 國會의 權威 중요합니다. 그러나 調査의 對象處인 相對機關의 그 機關의 입장과 그 機關에서 調査에 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대응 자세도 만들어 주어야지 우리가 調査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特委 委員會는 4黨이 공동 合意해서 만들어진 特委委員會이고 바로 委員長께서는 우리 전체 特委委員을 이끌고 계시는 대표이신 委員長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調査對象에 대한 調査의 절충이라든지 協議에 대해서는 우선 1次的으로 결정된 事項이면 專門委員 뿐만이 아니고 우리 民正黨側의 幹事에만 의존하실 뿐만이 아니고 당연히 特委의 委員長으로서 우리 特委의 目的과 또 입장과 위치를 상대機關에 충분히 설득하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 本人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靑南臺 調査問題에 관한 件을 오늘 이렇게 案件으로 올린 자체도 저는 새삼스럽다고 이렇게 느끼면서 오히려 委員長께서 우리와 與野委員들이 모두 靑南臺 現場調査를 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民正黨도 別途日程이 마련되는 대로 가자고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李聖浩委員께서도 우리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언제라도 相對機關과 議事日程을 협의를 해서 가자고 했습니다. 이런 제반 문제를 우리 委員長께서도 직접 나서서 靑瓦臺아니라 어디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委員長께서 하루빨리 이런 諸般問題의 상황을 충분히 認知하셔서 靑瓦臺側에 누가 擔當者인지는 모르지만 직접 通話하실 수도 있고 또 직접 公文을 내실 수 있기에 때문에 이런 節次過程을 거쳐서 靑南臺의 調査問題를 하루빨리 해서 우리 모든 國民의 의혹은 물론 또한 우리 特委가 마치 이것을 지연시킨다거나 또는 회방을 한다든지 이런 말이 두번다시 나올 수 없게끔 委員長께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東周委員** 지금 제가 靑南臺 부분에 대해서 첫 質疑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與黨에 所屬된 委員들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전연 나쁘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과 여러가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 그 더운날 우리가 소위 國政調査權이 發動된 상황에서 31名の 國會議員이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서 機關短銃을 바로 옆구리 부분에 대고 한시간 이상 出入을 統制 당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本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靑南臺는 분명히 違法建物입니다. 왜냐하면 各種 法은 전부 다 國民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大清帝은 82年2月5日 忠北 道知事로부터 交通部가 國立觀光地開發對象地 選定要請을 받고 82年11月15日 내정하여 12月2日 忠清北道에 通報를 한 地域입니다. 그런데 이 同地域을 5共和國下에서 觀光休養地域으로 변경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 하느냐 하면 지금 民正黨側 委員들이 여기가 大統領 執務室이라 하기 때문에 저는 執務室이나 別莊이나 하는 論理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觀光休養地域으로 임의대로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83年2月26日 建設部로부터 同 地域이 自然環境保存地域이며 上水源保護區域으로서 水質汚染의 우려가 있어 바로 交通部가 상신한 國民觀光地開發을 할 수 없다 하고 白紙化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바로 우리가 그날 갔을 때 그 住民들입니다. 저는 그뒤에 또 깜짝 놀란 사실은 이미 第5共和國下에서는 81년부터 이 地域을 秘密裡에 忠北道 建設局에서 이미 이 자리에 大統領 別莊을 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國民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까? 또 하나 분명히 自然環境保存地域이고 이것은 國土利用管理法입니다. 그 다음에 水道法에 볼 것 같으면 上水源 保護區域입니다. 여기에는 建築物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大統領 執務室이라고 해서 法을 위반하고… 지금 현재 坪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안보여주는 대로 또 저희들은 조사를 해냈습니다마는 지금 약 1,000坪 이상의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本館建物만 해도 2층이 약 400坪이랍니다. 그래 9「홀」짜리 골프場을 설치해야 되며 水泳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休息建物이래가지고 그늘집이 本館과 비슷한 두棟입니다.

또 執務를 하면서 낚시를 해야 됩니까? 낚시터설치도 여러個 해놓았습니다.

오각정 養漁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1,700餘坪의 養漁場… 執務하다가 고기도 키웁니까.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물론 「헬리콥터」飛行場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墓地에도 3個 4個 해놓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執務室을… 저는 政治를 재벌 할만큼 했음니다마는 全世界 民主主義國家에서 이런 執務室가진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돈을… 일개 個人이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登記가 분명히 總務處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委員長님에게 動議案을 내겠습니다. 물론 現場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 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哨兵의 機關銃 위협을 받고 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本調査活動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 점은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靑瓦臺 秘書室長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財產責任者 總務處長官 金容甲 이 두사람을 正式으로 이 特委에 出席要求하는 動議案을 내면서 그 出席하는 日時는 委員長에게 委任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會議場所는 이 會議場이 좁아서 안되겠습니다. 많은 國民들에게 과연 大統領執務室이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요전에 다른 委員會에서도 했음니다마는 豫決委員會場에서 이 靑南臺問題는 다시 다루기로 하고 저는 正式으로 이 두사람의 特委出席動議案을 냅니다.

(「再請이요」하는 이 있음)

(「三請이요」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基澤**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李聖浩委員 말씀하세요.

○**李聖浩委員** 먼저 靑南臺現場調査問題에 관한 件을 委員長이 제기했기 때문에 내가 몇가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事實이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내용중에 우리가 靑南臺를 調查對象으로 本會議의 議決을 무시한 發言은 한 바 없었다는 것을 委員長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節次上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願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안타까웠다는 말을 한 바 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想起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調查問題에 대해서 분명히 委員長께서 意見을 묻기에 부탁드립니다. 말씀한 것은 委員長은 지금이라도 빨리 靑瓦臺와 日程에 관한 문제가 전번에 있었다고 하니 그 쪽과 좀 意見을 나누어가지고 靑南臺調查를 하는 것이 좋겠다. 더불어서 日海財團에도 調查를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意見을 분명히 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同僚委員이 제 發言에 대해서 말씀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委員長이 먼저 분명히 여기에서 公的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요청하는 事項은 靑南臺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다 하는 것을 通報한 시간이 언제며 그 方法은 어떠하였는가 또 光州地方靑瓦臺 기타 調查對象 내곳에 대해서 通報한 시기는 언제이고 그 方法은 어떠하였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同僚委員이 말씀하시기를 本會議에서 3일을 하기로 決定했는데 1泊2日로 決定하고 그러한 표현을 쓰시면서 마치 안가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들렸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다 안 간다 하는 것은 이미 論外입니다. 本會議서 우리가 靑南臺를 가기로 決定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常識以下の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調查를 5가지 對象으로 해서 언제 가느냐 어느 곳을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은 節次上的 문제이기 때문에 幹事會議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國監法에 의해서 調查對象이기 때문에 不時에 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靑南臺는 生物體가 아닙니다. 물론 金東周委員이 말씀하시고 孫周恒委員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러한 嫌疑가 있다면 충분히 調查해야 된다는 의지를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本會議에서도 저희들이 決議에 同參을 했고 똑같이 먼저 調查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生物體가 아니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고정된 物件입니다. 때문에 調查와 搜查는 다르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무슨 大統領職務機關이기 때문에 최소한 禮儀를 차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다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은 한번쯤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도 우리 國會를 위해서도 全體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니냐 또 한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法曹生活은 안했습니다마는 調查對象을 분명히 調查를 해서 犯罪사실이라든지 疑惑사실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無罪입니다. 이것은 法律常識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미리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무례하게 한들 어떠냐 하는데 대해서 좀 우리가 禮儀를 國會로서 차리는 것도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本委員의 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 듭니다.

이상입니다.

○盧武鉉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民主黨의 盧武鉉委員입니다. 靑南臺現場調查問題에관한件이라는 議案이 上程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논의가 政府의 처사를 비난하고 일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첫번째 發言에 이어서 오히려 우리 委員會에서 節次上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방식의 오히려 委員會에서 自省할 일이 있는 것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議案으로 上程된 문제의 核心은 지난번 靑南臺調查가 좌절되었던 것이 調查의 妨害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규정짓고 그 다음에 調查의 妨害라면 이 調查妨害問題에 대해서 法律的으로

로 어떻게 對應해갈 것이며 우리 委員會는 어떤 措置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節次上の 문제가 決定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調査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調査를 해야 할 필요가 계속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먼저 審査해서 調査를 계속해야 한다든지 이미 시간이 지났고 國會가 이렇게 무시되고 있는 마당에 이따위 調査는 필요없으면 없다가 이러한 두가지 實體의 문제와 節次에 대한 妨害의 문제에 대해서 耑점을 맞추어서 논의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論議는 그렇게 案件의 핵심을 바로 잡지 않고 오히려 委員會自體內部的 문제 委員長이 혹시 무슨 國會의 權威를 失墜시킨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소위 이런 現場調査問題와는 좀 관계가 없는 그런 얘기 또 行政節次上 禮儀를 차려야 된다는 문제 이런 것으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모처럼 우리 金東周委員께서 出席要求動議案을 명백하게 제출했고 그리고 再請이 있고 三請이 있음으로써 이제 動議案이 분명하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發言은 動議案에 대해서 反對면 反對 아니면 아니다 하는 것 이와 같은 出席要求가 필요하나 안하나 하는 그 出席要求를 필요하나 안 하나 하는 것의 前提로서 과연 우리 特委의 活動에 있어서 法的인 瑕疵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 禮儀의 문제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빼고 禮儀의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한 意見의 제시일 뿐이고 法的인 瑕疵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瑕疵가 있었다면 우리로서는 出席要求의 正當性의 根據가 없다고 이렇게 反對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法的인 瑕疵가 없다면 相對가 妨害로 인식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討論하고 확실치 않을 때는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 볼 필요를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討論이 진행이 되도록 委員長님께서 조금 會議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慶宇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지금 盧武鉉委員께서도 議事進行發言을 하셔서 金東周委員의 動議案에 대한 根本的인 質反討論을 벌리는 것이 좋지 만 방향에서 調査의 實體問題라는 것은 本件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4次會議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第3項의 案件으로 나와 있는 調査對象關聯者出國禁止要請의件 이 案件을 다룰때에도 우리가 여러가지 波瀾曲折이 많았고 우리 民正黨의 不參속에 野3黨에 의해서 議決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주지하는 바입니다.

某日刊誌 「가십」欄에 난 것을 기억을 제가 해 보면 委員長께서 물론 言論人들과의 談話속에서 나온 얘기지만 당시의 景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0年동안 당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20年동안 당해 왔다는 말씀은 過去에 與黨의 多數에 의한 橫暴 또 소위 無所不能으로 議決해나갔던 당시의 상황을 서글피 보시고 그것이 不當하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急하더라도 우리가 法的인 節次를 따져야 되고 모든 것은 우리 國會가 國會法에 의한 과정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金東周委員의 動議案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原則 議事進行上 委員長께서는 그 動議案에 대한 再請與否도 물어주셔야 되고 또 이에 대한 議事棒에 打棒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쫓기시는지 20年동안 그렇게 恨이 맺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動議는 成立되었습니다. 李聖浩委員 얘기 해 주십시오. 이런식으로 議事進行이 되어서는 정말 公정한 議事進行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 特委委員會가 정말 公정하고 調査의 對象인 그 問題點의 實體를 정확히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委員會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냉정하고 理性的인 立場에서 議事進行을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動議案을 내신 것 자체를 제가 可타 否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은 節次에 의해서 進行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委員長께 드리는 것입니다.

○金重權委員 金重權委員입니다.

可及의이면 發言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다마는 저 자신에 관한 몇마디 이름도 모르 내리고 해서 解明아닌 解明도 해야 될 필요 성도 느꼈고 앞으로 本特委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저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靑南臺 事件을 두고 지금 舌戰이 벌어져 있고 여러 측면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靑南臺를 調査對象으로 삼은 것은 與野가 共히 疑感이 깊다고 하니까 疑感을 풀어주자 또 國民이 알 權利가 있으니가 소상하게 알려주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우리 民正黨에서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調査對象으로 포함시켰던 것은 周知의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一次的으로 調査方法의 일환으로 現場調査를 갈 때에도 깨끗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異論이 없습니다. 물론 本特委에서 調査를 하기 위해서 3日동안 日程을 잡아서 가는 것에 대해서도 異論이 없었습니다. 日程에 모두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調査方法의 일환인 調査日程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與野間에 의견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現實的... 그래서 그 調査日程을 議事日程이 아니라 調査日程을 지금 作成함에 있어서는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意見이 交換될 수 있고 소망스러운 의견이 開陳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이 靑瓦臺에서는 靑瓦臺의 그런 日程때문에 우리 國會가 예정한 그 시간에 靑南臺 調査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通報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幹事會議形式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11日 10日 1泊2日 동안의 다섯군데의 調査日程을 定함에 있어서 분명히 이 靑南臺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 委員會 專門委員에게 저는 그 項目에 대해서는 備考欄에 합의가 되지 않았

다는 未合意라고 하는 것을 적어넣으라고 하는 것을 數次에 걸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本人이 다시 이런 말씀을 되풀이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本特委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조속한 時間內 野黨委員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우리 所屬委員들이 모두 말하는 것처럼 빠른 時日內에 이것을 國民에게 알려주고 매듭지어야 될 그런 實務를 우리들이 안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머뭇거리냐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消費하면서 論爭을 벌이면서 舌戰을 하느냐 저는 사실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만일 政府나 또 與黨이 한결같이 그 公開를 원치 않고 또 그 公開를 拒否한다고 하면 문제는 다르지마는 그때 이미 靑瓦臺에서는 16日 정도이면 그 당시에 招請의 形式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野黨委員님 여러분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든 이 16日의 招請形式이 맞든지 안 맞든지간에 靑瓦臺當局에서는 그것을 「오픈」하면서 알려주고 또 疑感을 풀기 위해서 諸般의 措置를 한다고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表明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우리가 調査하려고 하는 날이 12日이었고 4日後면 公開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形式에 매달려서 너무 거기에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本末을 뒤집어버릴 그런 愚를 범할 可能性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같이 목소리를 같이해서 말하는 것은 國民이 갖고 있는 疑感을 풀어주자 이거요 그 풀어주는 방식에 있어서는 差異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던 그 差異를 調整하는 技術도 한번 발휘해 가면서 이 疑感을 풀어가야 될텐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本人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靑南臺問題에 대해서 한말씀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많은 우리 所屬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靑南臺와 全南知事公館이나 飛龍臺와 무슨 다를 것이 있느냐 전부 飛龍臺 全南知事公館이라고 하는 것은 地方靑瓦臺다 무엇이

다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地方靑瓦臺라고 하는 用語는 新聞에서 우리들이 읽은 하나의 用語입니다. 地方靑瓦臺라고 하는 그런 用語는 公式用語가 아닙니다. 大統領께서 全南地域이든 또 大田地域에 觀察를 간다든가 할 때에 警護上의 문제 또 다른 施設에 投宿했을 때에 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地域에 그곳에 起居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이 固定的인 大統領의 執務場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靑南臺는 다릅니다. 靑瓦臺에서 누차에 걸쳐서 밝혔던 것처럼 그런 靑瓦臺 施設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靑瓦臺 施設의 일부라고 하는 표현이 別莊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別莊으로 通用도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靑瓦臺 施設의 일부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어서 그것은 분명히 大統領이 기회있을 때마다 起居하면서 執務하는 장소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이해를 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두곳의 地方靑瓦臺라고 하는 이것과 지금 靑南臺라고 하는 것은 그 用語에서 이미 보여주는 것처럼 南쪽에 있는 靑瓦臺입니다. 그러니까 이진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성질상의 차이를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가 여기서 留意해야 될 것은 어쨌든 우리가 이 疑念을 해소하자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與野가 觀角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委員長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빠른 時日內에 그쪽도 하나의 憲法機關이라고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이 되었읍니다마는 서로 協議해서 적정한 날을 選定해서 조속한 時日內에 調査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委員長께서는 이 점에 着眼하셔서 政治力이라고 할까 어떤 여러가지 측면의 지혜를 짜셔서 이것이 무리없이 빠른 時日內에 進行되기를 苦待하고 있습니다.

靑南臺... 당시 우리 調査不能과 관계해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 委員중에 한사람입니다.

우리가 靑南臺 調査가 不能해서 돌아올

때의 문제에 대해서 몇 委員이 지적했던 것을 다시한번 想起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公務遂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日程이 당시에는 日海財團의 調査가 남아 있었읍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늘 말하는 것 처럼 이 特委에서 決議된 事項이고 調査方法의 일환으로 現場調査를 하도록 이 特委에서 決定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日海財團의 調査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特委의 議決이 없는한 調査는 進行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커다란 調査項目이 남아서 우리들의 日程이 남아 있는데도 중간에 遮斷이 되었읍니다.

아까 委員長께서 몇가지 解明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어서 우리 委員長 평소 제가 존경을 하고 또 6選委員으로서 後輩委員들에게 많은 指針을 주시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個人的으로는 저희 大學先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측면에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오이밭에서 끈을 다시 매지 말라는 그런 俗談이 있습니다. 靑南臺 이른바 不能事件이 있어서 우리 所屬委員들이 결국은 한두時間 半동안 버스 안에 갇혀서 결국은 運行이 되지 못한 그 상태를 저는 대단히 重視하고자 합니다. 委員長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解明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많은 證據들은 그것을 믿기에 대단히 의심을 가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大邱에 投宿하던 그 날 저녁 이미 우리가 靑南臺에 도착하게 되면 다수의 群衆이 우리의 버스를 막으면서 우리를 人質劇으로 삼아서 여러가지 어렵게 하겠다고 하는 「테오」現場이 突發되리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그때 얘기가 되고 있었읍니다. 다시 飛龍臺에 왔을 때도 그것이 확인되고 있었읍니다. 2시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도 누누이 우리 귀에 들렸던 것은 숨김 없는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사실상 그 現場에서 막혀서 오지 못할때 2時間 半동안 그 무더운 날 그 버스 안에서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못

해서 제가 내려 왔습니다. 많은 群衆 속에서 제가 내려 와서 群衆들을 설득하고 얘기를 할때 그중에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委員長의 秘書가 이삼일전에 내려와서 國會議員이 앞으로 30名이 이 地域에 觀察를 오는데 여기에 와서 「데모」를 해라 말이야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眞僞가 맞는지의 興否는 알 길이 없읍니다마는 어쨌든 그 現場에서 들리는 소리는 분명 했습니다.

또 이러한 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現場에 갈때 우리 버스에 타야 될 사람은 特委委員입니다.

또 거기에 뒷바침해야 될 專門委員이나 國會議員 이외에는 그 버스에 타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남모르는 어떤 사람이 버스에 타고 그것도 맨 앞자리에 타서 인도하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정체는 어떤 사람이나 이것입니다. 무슨 資格으로 어떤 身分으로 그 버스에 타서 안내를 하고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오이발에서 끈을 다시 매지말라 하는 이런 俗談을 다시한번 저도 되새기게 됩니다.

다음 앞으로 우리들은 많은 調査日程이 남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與野議員을 가릴 것이 없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舌戰을 벌이는 것보다는 現場에 가든 또 關係 國務委員을 出席시키는 이 事實 眞實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언제라도 이 特委에 불러서 調査하고 또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또 많은 證人の 證言도 들어야 하고 參考人 陳述도 들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 남아 있는 많은 議事日程에 대해서도 빠른 時日內에 우리들이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워진 많은 일들을 앞에 놓고 자꾸 여러모로... 또 보는 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저런 理由를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特委에 맡겨진 本分을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면서

委員長께서는 이 점을 특별히 헤아리셔서 本特委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議事進行發言입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李基澤 예. 말씀하세요.

○李敬載委員 李敬載委員입니다.

金重權委員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議事進行發言으로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읍니다마는 할 수 없어서... 動議案이 成立이 되었으니 改議가 있으신지 물으시고 가급적이면 滿場一致로 通過했으면 합니다. 改議가 있으신지 물으시고... 없을 걸로 제가 압니다. 그리고 民正黨委員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이 이 다음 案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滿場一致로 通過해서 動議案을 처리하도록 議事進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거 참 굉장히 어렵네요. 말하는 사람들은 다 自由입니다.

특히 國民의 代表로서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委員들 얘기도 보면 사실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좀 失禮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또 사실과는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幹事會議에서는 合意는 적게하고 뭐 어떤 부분을 적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委員長이 다 해명할 수 없애 가지고 幹事들끼리 나중이라도 다시 한번 따져 보세요마는 우리 全體 現場調査日程은 滿場一致로 合意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事前 措置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靑南를 남의面 面民들의 데모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文義面」입니다)하는 이 있음)

文義面... 이 사람은 면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해명한 그 이상의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참 이상한 기분이 드는구만요. 또 많이 이런 면으로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을 공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野黨 오래하면서 많이 당해 왔기 때문에 참 이미 숙련도 되어 있는 상태를시다마는

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政治「스타일」누구를 합부로 이유없이 動員해서 煽動하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政治「스타일」중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一時的이나마 오해를 받는다 하는 것이 참 이것이 내가 委員長을 안 맡았으면 평생 이런 오해를 안 받고 政治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委員長자리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다마는 다 생략하고 하고 싶은 얘기 어떻게 이 세상에 다하고 삽니까? 문제의 우리 委員會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本質로 돌아가서 金東周委員께서 靑瓦臺秘書室長 그리고 總務處長官 出席動議를 正式으로 했습니다. 물론 張慶宇委員께서 會議進行方法까지 그 뜻기듯이 왜 성립이라고 얘기하느냐 성립이라고 하면 방망이를 안 쳤느냐 하지마는 그것 저도 다 압니다. 그 정도는... 그러나 動議가 비록 됐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을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는 可決보다는 對話로써 滿場一致로 이 動議가 通過될 수 있으면 더 좋은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會議節次를 안 거친 게 있다 그런 것도 좀 善意로 해석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것까지 委員長을 일일이 꼬집어야 할 이유가 뭔지 참 답답하기 짝이 없구만요.

金重權幹事께서도 말씀은 빨리 調查하자 부를 사람 불러야 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불러야 되는데 우리 말처럼 작자가 다 행동으로 한번 옮기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도 또 더군다나 이 委員會가 表決 무슨 그런 방식보다는 對話를 통해서 運營해 나가는 妙를 살리기 위해서 이 動議案도 조금 留保해놓고 지금 會議 시작한 지 어언 두 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일단 停會를 하고...

○委員長 방금 委員長께서 會議의 원만한 진행과 또 滿場一致 合意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動議者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 분명히 이야기 해야 될 것은 動議案 자체가 再請이 있고 三請이 있는데 이 자체는 留保가 아닙니다. 이것은 채택을 해 주시고 만일에 民正黨에서 黨論調整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상 證人出席 決定할때 여러분들께서 停會要求를 해서 잠깐 헤어져가지고 다시 하자 새로 黨論을 調整하자 이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國會에 사람들이 안계셨어요. 이래서 그 뒤에 보니까 자기들이 잘 했다 우리가 잘 했다 이래가지고 節次問題를 가지고 하는데 정 委員長님께서서 本 特委會를 원활히 運營하기 위하여 停會를 한다면 딱 시간을 정합니다. 지금 5時면 5시에 그때는 다시 通報없이 이 자리에 와서 會議를 進行해야지 또 만일에 안 나타난다면 이것은 큰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動議는 成立이 된 상태입니다. 成立이 된 상태에서 일단 30分間만 停會를 하고 다시 5時 正刻에 本 會議를 시작하겠습니다.

停會를 하겠습니다.

(16時26分 會議中止)

(18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金東周委員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周委員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本 委員會가 조사를 더 能率的으로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아까 제 動議案에 再請 三請 해주신 委員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의 動議案을 撤回하고 다시 動議案을 낼까 합니다.

4黨 幹事間에 원만한 合意가 되고 또 國務委員 정도의 出席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黨에서 反對하고 어느黨에서 贊成하는 이런 풍토가 있어서는 과연 能率的인 會議가 되겠느냐 하는 많은 委員들의 좋은 調整案도 있었고 해서 제가 動議案을 다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내일 24日 2時에는 우리가 日海財團을 現場調查하기로 하고 29日 月曜日 10時에는 분명히 靑瓦臺秘書室長이 出席하여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하고 또 財産 責任者인 總務處長官은 그날 분명히 出席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조사하는 現場에서 바로 委員들의 質疑 應答에 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動議案을 제출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再請 제십니까?

(「再請입니다」하는 이 있음)

三請...

○盧武鉉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三請까지 成立시켜 놓고 할까요? 이 動議案을 별도로 成立시켜 놓고 그 다음에...

○盧武鉉委員 動議案 發議者가 자기의 動議案을 撤回하기 위해서는 再請한 사람의 同意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再請한 사람으로서 撤回의 취지에 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물어두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質問을 하고 그 취지가 명백히 된 것을 前提로 해서 제가 動議 撤回하는데 同意하고 안함을 밝히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좋아요.

○盧武鉉委員 日程에 있어서의 變更에 관해서는 별 다른 異見을 가지거나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國務委員 또는 秘書室長의 出席과 質問에 관해서 現場에서 質疑와 應答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는 解明과 사과라는 얘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 質問을 드리는 취지는 지난번 靑南臺 現場調査가 좌절됨으로 해서 우리 國會 特委會는 두 가지 큰 문제에 부딪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 國會의 威信이 현저하게 추락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 特委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國會에 대한 威信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特委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장차 이 特委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現場을 열어준다는 이런 조사에 消極的으로 응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政府의 積極的인 행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節次에 의해서 政府의 방해물 어떻게 제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課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威信問題에 관해서 與黨側에서도 住民이 그날 議員의 車輛을 人質로 잡듯이 集團行動을 했던 것을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國會의 威信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보는 데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가 國會의 威信을 손상시키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정말 政府에 의한 國會의 侮辱行爲는 정말 더 큰 문제다... 왜냐 住民의 集團行動이란 것은 住民은 그저 자기의 안타까움을 國會에 호소하든 政府에 호소하든 언젠가는 기회있을 때마다 호소를 하고 때로는 그것이 무리한 태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政府와 같은 社會的인 責任이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사람의 國會의 輕視行爲 이런 것은 하나의 無知의 所致로 돌릴 수도 있지만 政府는 憲法을 수호하고 法秩序를 존중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權力分立原則을 존중해야 될 입장에 있는 소위 法執行者입니다. 法執行者에 의한 國會의 侮辱과 一般 私人的 國會議員에 대한 어떤 항의라든지 조금 무리한 행위를 같은 차원에 놓고 볼 수는 없고 國會가 책임을 물어감에 있어서도 一般 私人的 책임을 묻는 것과 政府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날 이 本 特委會의 調査活動이 좌절되었던 데 대해서 분명한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그 책임을 밝히는 토대위에서 사과를 받거나 또는 책임을 물어 가는 방법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래에 대한 방해의 제거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特委活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1次 한번의 방해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다음 활동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해명과 사과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威信의 회복이라는 문제 그리고 장래에 대한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그 보장을 받는다는 문제에 있어서 이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명의 뜻이 조금 전에 金東周委員께서 제기한 그 해명이라는 뜻이 분명히 책임의 소재를 밝혀내는 것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해명이고 그와같은 責任所在가 밝혀진 상태에서 國會가 어느 정도의 사과를 용납한다는 것이 먼저 전체된 상태에서의 사과이어야지 어떤 형식의 것이든지 사과만 있거나 하면 國會는 받아 준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명과 사과의 문제는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그 이후 國會가 어느 정도의 政府의 태도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책임의 추궁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本 特委가 討論과 決議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으로 해명과 사과가 이해된다면은 그 다음에 現場 質疑應答이라고 하는 것은 靑南臺의 그 조사에 대한 實體的 문제와의 質疑와 應答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같은 취지의 것이라면 저희로서는 再請을 한 사람으로서 아무 異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취지가 다르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그 出席要求를 撤回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혀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金東周委員 방금 盧武鉉委員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徐廷華委員 제 얘기 관계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金東周委員 徐委員!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徐廷華委員 글썽 왜 다 끝난 얘기를 왜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委員長이 분명히 얘기한 것을 지금 會議를 진행시키려고 그런 거야 아니면 지연시키려고 그런 거야! 분명히 그것을 알고 넘어 갑시다.

(「徐委員! 참으세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委員長이 해명하고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분명한 얘기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徐委員! 發言權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發言 조금 이따가 해 주세요.

○金瑋鎬委員 發言權을 주지 왜 發言權을 안 줍니까?

○姜信玉委員 徐委員! 좀 양보하십시오.

○徐廷華委員 그것은 확실히 알고 넘어 갑시다.

○委員長 李基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아니

發言權은 委員長이 갖고 있는데 자주 이 앞에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徐廷華委員 예.

○委員長 李基澤 처음에 動議를 하신 金東周委員이 動議를 撤回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도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靑南臺에서의 靑瓦臺秘書室長 出席과 또 解明 謝過라고 그랬지요? 解明 謝過와 그 다음에 總務處長官의 出席을 전제로 해서 29日 月曜日 午前10時로 動議變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具體的으로 盧武鉉委員이 責任의 所在와 추궁 앞으로 이러한 調查活動에 대한 방해가 政府로부터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靑南臺事件을 계기로 한 보장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안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委員會는 委員長까지 31名의 委員들이 있습니다. 또 黨도 4黨이 건재하고 있고 또 大別하자면 또 與野의 입장도 다소 다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國會에서 正式動議를 해서 總務處長官이 나오고 또 靑瓦臺를 책임져서 秘書室長이 나오게 되면 盧武鉉委員처럼 많은 委員들이 또 그런 방향으로 추궁하고 묻고 따지고 또 安全裝置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委員들은 다 같은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金東周委員의 解明 謝過속에는 盧武鉉委員의 의지도 담긴 것으로 이렇게 해서 動議를 성립시키는 것이 어찌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이해가 가지요?

○盧武鉉委員 예.

○金瑋鎬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基澤 예. 金瑋鎬委員 말씀하세요.

○金瑋鎬委員 나는 民主黨의 金東周委員의 動議案에 異議를 먼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全體 委員會에서 靑瓦臺秘書室長 또는 總務處長官을 29日 靑南臺 現地調査에 出席토록 하는 動議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마는 전제로 하는 謝過와 解明을 반드시 거기 와서 해라 하는 조건부의 出席은 저는 반대합니다. 거기서 당당하게 質疑를 하고 따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謝過要求를 하든지 解明을 요구를 할 일이지 謝過와 解明을 전제로 하는 出席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決議를 해야 할 것은 總務處長官과 靑瓦臺秘書室長을 29日 저희들이 現地調查할 때 거기서 出席토록 한다 이렇게 決議를 당당하게 하자 그 말입니다. 謝過 안 해도 좋고 解明 안 해도 그것은 자기 自由意思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거기서 公式의인 現地調查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은 조건부 出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한계를 분명히 그어 놓고 그것을 金東周委員이 받아 들여 주신다고 그러면 再請 三請에 저도 同意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조건부 出席이라는 것은 저는 基本的으로 반대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金東周委員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金東周委員 좋습니다. 방금 金瑋鎭委員께서 한 말씀이나 우리 盧武鉉委員께서 한 말씀 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야기가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그 날 우리 調查委員들이 가서 1時間 이상 그런 봉변을 당한 데 대해서는 1次로 자기의 謝過가 있어야 됩니다. 있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대로 調查하자는 것입니다. 調查를 해서 그 故意性이나 여러 가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引責으로 들어 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소간의... 우리 金委員님 말씀이나 盧委員의 말씀이 조금 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저의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金委員님 이해가 안 가지겠습니까?

○金瑋鎭委員 謝過 안 해도 좋고 解明 안 해도 좋으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出席要求하는 場所와 時間은 바로 그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도록 決定을 짓자 그 말입니다. 決議로써...

무엇때문에 謝過와 解明을 전제로 하는 出席動議가 필요하나 그 말입니다.

○金東周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李基澤 좋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용은 다 아시지요?
滿場一致로 通過시킵니다. 그리고 日海 내 일 2時 포함해서... 감사합니다.
이 한 件 한 件이 넘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2. 全南道知事公館現場調查報告의件

(18時37分)

○委員長 李基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全羅南道知事公館 속칭 地方靑瓦臺現場調查報告에 관한件을 上程시키겠습니다.

이 案件은 지난 8月20日 朝鮮日報에 게재된 全羅南道 地方靑瓦臺 施設隱蔽記事와 관련하여 當日 幹事會議時에 各黨幹事間에 협의한 결과 事案의 重大性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特委 全體會議의 議決을 얻을 時間的 여유가 없어서... 그 날은 土曜日입니다. 없어서 現場再調查를 실시하고 그 調查結果를 오늘 會議에 報告토록 幹事會議에서 合意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各黨幹事들이 네 분이 光州를 다녀와서 오늘 午前 12時 正午에 함께 모여서 報告書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委員會로서는 이 報告書를 듣고 접수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동시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質問을 해 주시고 또 다녀오신 저희 同僚委員들께서는 答辯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金 炫委員께서 나오셔서가지고 報告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 炫委員 新民主共和黨 金 炫입니다.

全南道知事公館 現場調查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現場調查團은 張慶宇委員 民主正義黨 趙昇衡 平和民主黨 姜信玉 統一民主黨 金 炫 新民主共和黨委員으로 構成되어 1988年8月20日 부터 8月21日까지 2日間 全南道知事公館에 대한 現場 再調查를 하였던 바 그 調查活動의 概要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調查委員一行은 8月20日 14時45分 全南道知事公館에 도착하여 즉시 公館 1層會議室에서 文昌洙 全南道知事로부터 朝鮮日報에 게재된 公館의 什器類 隱蔽記事 內容에 대해 說明을

요구하고 質疑答辯이 있었던 바 그 要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文昌洙知事の 설명에 의하면 新聞記事는 家電製品과 高級室內裝飾品이 特委 調査當日인 8月11日 5時30분에 옮긴 것으로 되어 있으나 8月10日 10時頃 全南道廳 會計課 用度係長 車宗銀에 의해 인근 全南農村振興院 總務課長室 등으로 옮겨졌으며 家電製品 TV「세트」 3臺 장치뿐으로 外製가 아닌 金星社 製品으로 84年1月24일에 구입한 것이고 그 외에 屏風 3점과 그림 12점이 같은 날 동시에 옮겨졌는 바 調査當日인 8月11日 6時40分 知事が 현장을 확인한 바 大統領 專用室 2층의 TV「세트」가 없는 것을 發見하고 公館 管理人 정영섭에게 알아본 바 TV「세트」 등이 옮겨진 사실을 알게 되어 전부 제 자리에 還元 措置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特委調査團이 다녀간 다음에 公館으로 옮겼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報道에 대하여는 調査當日 10時頃に 公館으로 다시 옮겨졌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또한 文昌洙知事は TV「세트」 屏風등이 자기의 지시없이 누구에 의하여 옮겨졌는가를 알아보니 會計課 用度係長의 獨斷의인 판단에 따라 用度係長이 用度係職員 公館管理人 등 4인과 함께 옮겼으며 TV「세트」를 옮긴 이유는 지난 5月頃 同 公館의 全景이 日刊新聞에 寫眞과 함께 地方 靑瓦畫가 크게 보도된 바 있어 同 公館이 호화스럽게 보여 물의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부담을 덜기 위하여 職員이 임의로 옮겼다고 보고 하였으며 用度係長 車宗銀은 什器類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 屏風은 公館1層 會議場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나 國政調査 報告場 마련에 空間活用을 위해 公館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 農村振興院으로 옮겼고 그림 12점은 地下室 청소시 그림에 곰팡이가 나서 꾸중을 들을까 보아 農村振興院으로 옮겼으며 TV「세트」는 貴賓室 什器類 사용개방에 관한 內務部長官 指針에 의거 그 활용을 위한 목적과 또한 貴賓室이 호화롭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目的으로 用度係職員인 정광덕 김재우 등과 함께 「트럭」으로 農村振興院 總務課長房으로 옮겼다고 진술하고 知事の 원상복구 지시를 받고 農村振興院으로 옮긴 다음 날인 8月11日 10時頃

TV「세트」 屏風은 원래의 위치대로 그림 12점은 通風關係上 公館入口에 있는 守衛室의 방으로 옮겨놓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調査委員一行은 全南道知事 및 道廳 關係公務員의 報告 및 陳述을 들은 다음 15時55分부터 公館의 2層 貴賓室 1層 公館 地下室과 正門入口의 守衛室 그리고 什器類가 옮겨졌던 公館에서 약 200m 떨어져 있는 農村振興院의 현장을 답사하여 비품을 확인하고 農村振興院 職員으로부터 公館의 什器類가 언제 어떠한 것들이 옮겨져 왔는가를 現場調査한 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公館正門 입구의 案内室 건물에 있는 경호원 방에 그림 12點 東洋畫 10點 西洋畫 12點과 按摩用 침대가 있는 것을 發見 하였으며 公館 2층 貴賓室의 多用途室의 이발대가 옮겨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全南農村振興院 現場調査에서는 農村振興院 總務課 經理係長 이정섭과 經理係職員 韓東燾로부터 道廳會計課 職員들이 8月10日 10時頃 잠시 갔다 놓은 것이라며 문제의 什器類를 1층 總務課長室과 2층 會議室 옆 창고에 갔다 놓았다가 그 다음 날 10時頃 다시 가져갔다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調査委員一行은 全南道廳에 대하여 公館의 物品出納簿와 公館揭示 作業내역 貴賓室 什器類 관리개선 公文 등의 寫本提示를 요청하고 17時15分 당일의 調査活動을 마쳤으며 特委 調査委員一行은 8月21日 9時45分 全南知事公館에서 2日째 調査活動을 개시하여 물품대장을 중심으로 비치되어 있는 什器類를 대조하기 위하여 公館 副知事室 道廳倉庫 振興院을 답사하고 文昌洙 全南道知事를 비롯한 道廳의 公館關係 公務員과 全南農村振興院 院長등 農村振興院 總務課 職員을 調査委員들이 개별로 심문 또는 면담하여 關係者 8人 즉 文昌洙 全南道知事 정광덕 道廳會計課 用途係 地方行政主事補 정영섭 公館管理人 地方行政書記 김재우 道廳會計課 用度係 地方雇傭職 백몽기 公館請願警察官 실현석 全南農村振興院 院長 박상채 全南農村振興院 總務係長 韓東燾 全南農村振興院 總務課 經理係職員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동일 13時50分 調査活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調査結果에 대한 意見を 말씀드리겠습니다.

調査結果에 대한 意見

가. 2日間에 걸친 현장조사결과 관계인의 진술에 의하면 道廳會計課 用度係長이 위의 목적으로 자신의 獨自의 판단에 의하여 用度係 職員 및 公館管理人和 함께 이동시킨 것으로 되어 있으나 係長이 上部 部署長의 지시나 허가없이 獨自의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읍니다.

나. 公館內 貴賓室用 什器의 외부반출 여부에 대하여는 TV「세트」 병풍 3點 東洋畫 10點 西洋畫 2點 이발대 1대 안마용 침대 1대를 大統領전용 시설인 귀빈실에서 全南農村振興院 總務課長室 및 2층 창고나 公館警備室의 부속공간 또는 公館 2층 창고에 반출했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搬出日時 환원일시 등에 관하여는 일정하지 아니하나 비개방시설로 지정된 6개의 公館에 대하여서는 1988年3月25日字 內務部長官의 指示公文에 의하더라도 의전상 필수장소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관리하라는 것이었으므로 누구도 公館의 집기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搬出行爲가 있었음은 搬出日時가 어떤간에 1988年8月11日의 調査特委의 調査活動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瑋鎬委員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按摩用 침대구조가 어떻게 생겼읍니까?

○金 炫委員 이 「마이크」높이 보다 약간 높아가지고 올라온 것인데 보통 베개가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완전히 침대예요. 축소된 침대인데 한쪽에 베개 겸용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價格이 123萬원짜리 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按摩用 침대를 發見하게 된 동기는 정문 들어가면 警備員들이 자고있는 침대가 여러 個가 있는데 맨 「코너」에다가 다른 「카버」를

씌워서 이렇게 위장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 침대의 폭은 1m정도가 채 안 됩니다. 價格으로 따지면 분명히 123萬원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 炫委員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침대 구경을 해 보았읍니까?

○金 炫委員 별 기억이 없읍니다.

○委員長 李基澤 특수 침대군요.

다음에 또 혹시 물으실 委員이 계시면...

○金東周委員 우리가 그날 우리가 現場調査를 했지만 農村振興院에 지금 현재 물건을 갖다 놓았다면서요 일부는...

農村振興院이라고 하면 지금 公館에서 鐵門을 두개를 열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날 또 우리가 全南知事가 報告를 하기를 齊瓦를 안팎 이렇게 報告를 했읍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 鐵門을 우리가 열어가지고 그 綠地空間도 빨리 이것을 公園을 하든지 어떻든지 두 개의 鐵門을 열어가면서 갖다 놓았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지요.

또 하나는 地下室에 거기에 지금 현재 고급 그림같은 것이 이런 것이 地下室에 곰팡이가 피어서 건조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로 옮겨놓았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 公館 그 아름다운 잔디 나는 평생 처음 보았읍니다.

이런 잔디에서 말려야 곰팡이가 잘 죽지만일 설사 곰팡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또 다른 창고같은 데 갖다놓아야 그 곰팡이가 죽는지 또 하나는 분명히 그날 우리가 창고도 委員長도 같이 열어보았읍니다.

창고도 地下倉庫도 확인했을 때 곰팡이가 슬 시설이... 생길 수 있는 시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물건은 「캔」맥주만 있었어요. 몇 상자 있었어요. 이런 점을 보아서 저는 本委員은 생각하기로 분명히 이것은 또 더군다나 內務部長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참 內務部長官의 指示公文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用度係長인가 職員 이런 사람들이 그 鐵門을 두 개나 열고 다른 데까지 이리저리 갖다놓고 또 수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듣기 좋게 얘기해서 수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正門 警備員室아닙니까? 警備員室맞지요?

여기에 참 大統領이 지금 입장이 어저되었던 간에 大統領이 즐겨 하던 이발시설이 침대나 안마의자를 갖다놓았다 하는 것은常識的인 이야기다 이래서 調査를 하러 갔다 오신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물기로 이것은 사전에 故意的으로 이것은 知事가 그 호화시설을 은폐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知事로서 單獨으로는 도저히 결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上部의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 炫委員** 글세요.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委員會에 報告를 드린 것이고 한 가지 지금 金東周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答辯을 한다면 多用途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핏 듣기에 부엌에서 밥을 지어먹는 多用途室이 아니라 목욕실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報告말씀에서 있었는데 사치성이나 퇴폐성을 염려한 나머지 이발용 의자는 2층 창고에 또 침대는 正門守衛室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貴賓이 오셨을 적에 警護員들이 와서 자고 있는 현재 「더블베드」도 스물 몇 개가 있습니다. 現場에... 그런 그 방에 그것도 침대있는 옆에다 맨 귀퉁이에다가 거의 故意的으로 왔던 狀態 그 다음에 現場에 지금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은 목욕을 한 다음에 쓰고 있는 「스기」목 의자라고 해가지고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도 돌아와 있지 않고 또 現場調査한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다용도실에 있어야 될 「스탠드」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침실로 옮겨져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다용도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을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地下室에서는 곰팡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金委員님이 조금 잘못 알으신 것으로서 地下室에 있던 場所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食器類를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은 약간의 곰팡이가 났었으며 그러나 이유는 곰팡이가 나서 그리 옮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아니고 그 그림이 그 쪽으로 옮겨진 것만은

사실이고 곰팡이가 날만한 場所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림이나 집기가 옮겨진 場所가 다섯 군데로 分散되어서 되었고 특히 全南 1다8000番이라는 1트럭을 동원해서 「트럭」까지 갖다가 이 물건을 옮겼기 때문에 故意性이 없다고는 전연 볼 수가 없다고 思料됩니다.

○**梁性佑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李基澤** 예. 梁委員님 말씀하세요.

○**梁性佑委員** 재삼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을 質問을 하겠습니다.

調査報告書에 이 貴賓室이 호화롭게 보이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用度係職員인 정광덕 등이 「트럭」으로 農村振興院으로 물건들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調査하러 가신 委員들께서도 보시기에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호화로웠는지 또 호화로움을 은폐하기 위해서 같은 質問 비슷한 것이 이미 나왔지만 은폐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옮긴 것이 사실로 보였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內務部長官의 허락이 없는 한 그 公館을 현상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知事나 用度係長 단독으로 이 公館의 什器를 搬出할 수 없는데 이 搬出行爲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上部의 어떤 지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인지 다시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분명한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 炫委員** 제가 答辯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 炫委員이 答辯을 아주 잘 하십니다마는 네 분이 다녀 오셨으니까 꼭 혼자 하시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번갈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質問은 뒤 金 炫委員이 하시려면 하십시오.

○**金 炫委員** 제가 보기에는 호화롭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큰 뒀는 사실상 느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허나 아까도 제가 조그마한 침대 하나에 123萬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附價稅를 1割붙이면 그것보다 더 비싸겠지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침대 하나가 375萬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附價稅를 붙이게 되면 400萬원이 넘어 갑니다. 침대 하나가... 그런데 本委員의 눈이 이상해서 그런지 400萬원짜리 침대 쳐놓고는

너무 초라하다라는 오히려 그런 면으로 보는 것인데 이는 全南道廳에서 틀림없이 支出하고 해준 證憑書類이기때문에 그 방 두 개와 다용도실에 들어가 있던 것이 3,850萬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委員으로서 보는 視角이 다르니까 價格으로 대신 答辯을 해드리지요. 방 두 개가 다용도실에 들어 있던 施設費가 그러니까 家具費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什器 家具費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3,850萬6,000원입니다.

3,850萬6,600원어치가 방 두 개와 다용도실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別途 決裁해가지고 決裁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받지 않았읍니다. 죄송합니다.

○梁性佑委員 두번째 質問에 대해서 答辯해주세요.

그러니까 內務部長官問題말이에요.

○金炫委員 그날 本人들 答辯은 전체가 用度係長이 任意的으로 했다고 하고 知事 그 외에 모든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특히 하나 이상한 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按摩用 침대는 本委員이 발견한 것입니다.

用度係長을 立會시켜서 그 장소를 열게 했더니 이것만은 저는 절대 모릅니다하는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用度係長 혼자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절대 모릅니다 하는 엉뚱한 答辯에 의하면 用度係長 혼자로는 힘들지 않느냐...

○張慶宇委員 議事進行發言을 좀 하겠습니까. 本末이 顛倒된 것 같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두번째 案件은 全羅南道 知事公館現場調查報告의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委員長님께서 설명하시피 지난번 이미 8月10日 우리 調查特委 全員이 現場에 調査를 갔다 온 이후에 최근 某日刊紙에 報告된 事件이 과연 진실이나 아니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調査하기 위해서 各黨에서 한 분씩 대표로 해서 現地 調査를 다녀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調査結果의 報告를 네 분을 대표해서 金炫委員께서 지금 調查報告書를 委員들께 낭독하고 報告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委員들께서 우리 報告한 내용에 대한 지금 質問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梁性佑委員님이나 또는 지난 8月10日 그 現場調査에 參席하지 않으신 委員님들은 물론 당시에 직접 확인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호화스러운지 아닌지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생각이 있으시니까 물으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會議의 본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미 特委에서 現場調査를 했고 다만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바로 현장을 隱蔽했다 또는 상당한 물건을 빼돌렸다 하는 그 記事 내용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의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하러 저희들 各黨의 대표가 그 자리에 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報告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質問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答辯을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일단 우선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梁性佑委員 예. 제가 물은 質問은 隱蔽한 물건의 豪華性 興否를 물은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孫周恒委員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날 맨 처음에 知事公館을 갔을 때에 그림을 세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입구에 있는 雅山 4쪽짜리 全紙 너장짜리의 그림이 하나 크게 붙어있고 안에 역시 雅山 그림 全紙 한장짜리가 있고 南農 반절짜리가 붙어 있고 靑堂 白浦 그렇게 해서 열두 점이 걸려 있었고 병풍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열두 점이 창고에서 나왔습니까?

○養信玉委員 예.

○孫周恒委員 그것 말고 벽에 그렇게 많이 그림을 붙일 데가 없는데 따로 창고에다가 놓고 별도로 은폐시키고 그렇게 할 것이 또 있습니까?

○養信玉委員 그것이 지금 展示되어 있는 것 말고 12點이 하나의 「스페어」지요. 적당한 때 바꾸어놓아야 된단든지 이런 용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孫周恒委員 委員長 이것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道知事 別館이 地方靑瓦臺가 全州도 있고 釜山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全州에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全州도 地方에 있는 畫家들한테 그림을 반강제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光州에 있는 某 畫家한테 제가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당신이 돈을 받았느냐구... 한푼도 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헌납했느냐 하니까 헌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빼앗겼느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얘기를 하자면 원 주인한테 돈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안마침대같은 것 혹은 다른 것은 전부 價格이 明示되어 있는데 그림에 대한 價格明示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美信玉委員이 갔다왔으니까 그것 있습니까?

○美信玉委員 없읍니다.

○孫周愷委員 없지요? 전부 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全羅南道를 저희가 맨 먼저 가기를 잘했다 생각하는 것은 밖에 지금 떠돌고 있는 소문은 建築費도 50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12億이라고 그때 提出이 되었지만 우리가 가서 눈으로 볼 적에 5,000餘坪의 바깥의 遺景 내지 建坪 内部 外部의 什器 등등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50億이 넘었으면 넘었지 50億以下로는 안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시의 知事가 建設部長官도 지냈던 金宗鎬입니다. 金宗鎬가 그것을 지어 가지고 光州市民이나 全南道民들이 말하기를 말하자면 榮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아까 與黨의 張委員 말씀하시는데 이것만은 분명히 우리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가 사려깊게 검토되어져 가지고 흑백이 가려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瑋鎬委員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知事公館 현지조사때 안가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報告에서 다용도실이라고 그랬는데 이 다용도실이라는 방 이름을 우리들이 지은 것

인지 당초부터 다용도실로 나와있는 것인지 그리고 당시 다용도실의 방의 구조라든가 용도가 執務室로 되어있습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쓰는 다용도실인지 또 다용도실에 있었던 物件들이 隱蔽가 된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다용도실에 대해서 좀 具體的으로 補充報告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金 煥委員 제가 答辯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物品管理에 대해서는 그날 전체적으로 제가 「체크」를 했고 나머지 세 幹事님은 여덟 사람을 불러서 質疑를 했기 때문에 다용도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全南道廳에서 내준 公文 속에 보면 우선 居室 寢室 多用途室 해 가지고 全南道廳에서 쓴 용어입니다. 多用途室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목욕실에 바로 붙어서 안마나 이발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를 多用途室이라고 했습니다.

○金瑋鎬委員 내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던 물건이 은폐된 흔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金 煥委員 그 흔적은 조금 전에 報告에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다용도실이 제일 많이 없어졌는데 처음에 原狀復舊시켰다고 해서 갔는데도 이발기거나 안마침대나 혹은 「스기」木의자 목욕하고 쉬는 삼나무로 만든 의자가...

○金瑋鎬委員 물침대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金 煥委員 예. 물침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은 전체가 다 없어졌다시피했다가 저희 調查委員들 몇 분의 지적에 의해서 우선 平民黨의 趙委員님이 이발의자 어디 갔느냐고 지적하신 데에서부터 原狀復舊시켜라... 그래서 거의 原狀復舊가 되었는데도 저희들 調查團이 돌아올 때까지 「스기」木의자는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金瑋鎬委員 「스기」木의자가 뭐니까?

○金 煥委員 말 그대로 杉나무...

○金瑋鎬委員 의자 구조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金 煥委員 그 의자 구조는 저희들도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金東周委員 委員長님 發言權 주시지요.

저는 조금 다른 委員들 하고 見解에 差異點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5共特委調査가 지금 현재 분명히 거짓이라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調査活動을 하고 모든 記錄을 제가 참고해 볼때 세가지가 똑떨어지게 全南知事가 責任者니까 報告를 우리에게 거짓을 시켰다 이런 결론이 내려지겠습니다. 혹시 差異點이 있으면 다른 委員들 저의 質疑에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4黨幹事들이 가서 調査한 중에서 거기 車係長 지금 자기가 다 덮어쓰겠다고 나서는 이 車係長이라는 사람이 TV 高級「세트」 같은 것은 公館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주지않기 위해서 정말 은폐하기 위해서 치웠다 시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단 指示를 했다 안했다 하는 문제는 뒤에 더 調査를 하기로 하고 그날 現況報告중에서 知事가 제가 그 당시에 質問을 했는데 여기에 備品이나 모든 庭園樹에 대해서 地方費를 支出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金奉旭委員도 했습니다. 하나가 10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全南道에서 가져온 備品購買決議書를 제가 보니까 83年度 12月13日 契約을 해서 서울家具協同組合입니다. 그 다음 納品은 85年1月22日 받았읍니다. 納品場所는 道知事公館이고 또 全南道 內務局會計課 地方行政主事補 조두한의 起案에 의해서 全南道の 地方費가 支出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品目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行事用 什器 침대外 31種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調査團에게는 분명히 地方費를 10원도 지출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한것이 분명히 僞證이 똑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거기 額數가 3,850萬원 稅金 때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紙上報道에 의하면 그 당시 文昌洙 全南知事는 公館周圍에 많은 國民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業務地域의 땅을 6月부로 解除를 했다 이래서 住民들에게는 하등의 불편이 없습니다.

또 2層以上 집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을

니다. 業務地域에서 住居地域으로 用途變更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調査團이 그것까지 調査를 해 오셨는지 안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직까지 用途變更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등을 봐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에는 全南知事 그 다음 지금 현재 관련 되어가고 계속 우리 國民을 속이고 있는 國會議員들을 속이고 있는 關係官들은 즉각 行政府에서 罷免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5共非理特別委員會에서는 應分の 행사 문제도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또 더 하나 本委員으로서는 유감으로 표시하는 것은 內務部長官이 자기의 指示를 어긴 바로 指示覺書 아십니까? 그것도…… 2層 公館은 누구도 손을 대지 마라 했는…… 이 부하들을 지금까지도 處罰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報道나 우리 調査委員들의 調査를 잘못된 양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해서 저는 內務部長官이 本特委에 出席을 해서 그 점을 명백히 자기가 해명을 해야 되고 만일 內務部長官이 出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內務部長官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內務部長官은 당연히 우리 國會本會議에서 引責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重權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重權委員 말씀하세요.

○金重權委員 지금 議事日程 第2項이 全南道知事の 公館現場調査報告의 件으로 上程되어 있습니다.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서두에 말씀 하셨지만 지난 20日에 調査班이 構成이 되어서 現場이 變更된 것에 대한 調査를 가기로 4黨幹事間에 사실상 양해가 되어서 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調査班이 構成되고 調査에 임하려고 하면 어떤 소정의 節次를 거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本特委의 議決을 거쳐서 調査班이 編成되고 構成되면서 調査에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기의 어떤 急迫性때문에 4黨幹事가 일단 협의를 해서 調査하게 하고 나중에 이 特委를 열어서 調査班編成에 대한 追認을 해야 하는 節

차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런 節次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 다음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追認이 된 연후에 그러면 調查班의 報告書에 대해서 報告를 접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심지어 이 자리에서는 지난번에 조사했던 그 사항을 지금 再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봤고 檢證하고 눈으로 확인했던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再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特委의 運營이 여러 측면에서 자꾸 뒤뚱거리면서 어려워지고 이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本人이 바라는 것은 오늘 議事日程 2項은 분명히 調查班 編成에 대해서 追認을 하고 그 報告書를 接受하고 그 報告書에 대해서 疑問이 되면 그 現場變更事項에 대해서 지금 質問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사항을 여기서 자꾸 再演하고 三演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調查進行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同僚委員께서는 무슨 引責問題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잘못되면 引責을 해야 됩니다. 처벌도 해야 됩니다. 강하게 問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問責을 하고 引責을 한다고 그러면 항상 그 전제가 진실이 발견될 때 다음에 따르는 그런 後續措置인 것입니다.

진실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新聞에 난 어떤 한 事項을 가지고 그것을 믿어버리고 심증이 형성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問責을 말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를 提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변경이 됐느냐 變更이 됐다고 하면 누구의 짓이나 누구냐 이런 것이 분명히 黑白이 가려진 후에 問責하고 引責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本末을 뒤집는 듯한 이러한 議事運營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委員長께서는 이런 側面에서 議事를 進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質問 다 하셨습니까?

오늘 第2項의 議事日程은 委員長이 司會를

보면서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調查團이 꼭 法律的으로 보면 委員會의 公式派遣 調查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이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 4黨幹事들이 다 그렇게 共通 認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委員會의 決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現場에 가보자 그리고 문제가 되면 委員會의 追認을 나중에 받아도 되지않겠느냐 그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여러 委員들께서 아무런 異議를 提起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公式的인 調查團으로서 또 우리 4黨幹事들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 報告를 우리가 公式으로 듣는 것은 갈때는 委員會 決議가 없어서 非公式이었을는지 모르지만 4黨幹事가 다녀와서 여기에서 報告하는 것은 난 그것은 公式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金重權委員이 지적했듯이 혹시 質疑가 우리 委員간에 報告고 質疑고 答辯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本流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범위내의 質問 答辯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事案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 아가 누가 그런 표현도 합디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저 物件 什器 옮긴 정도의 事件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國政調查를 방해하기 위해서 證據物이라고 할까요 物件을 은닉한 것이다 이렇게 또 造作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은 우리가 非理를 척결해야 되는 그 目的地로 가는 길목에 우리들에게 차여진 하나의 돌뿌리에 불과합니다. 이 돌뿌리를 우리가 완전히 앞으로도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제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강 옆으로 밀어놓고 우리가 좀 進行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委員 여러분들의 會議進行上 良識에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質疑하실 분이 계시면…… 또 議事進行 發言입니까? 좋습니다. 朴委員하세요.

○朴進球委員 朴進球委員입니다.

經緯야 어쨌든간에 全羅南道 知事公館에 있

있던 什器移動의 件은 크게 잘못 되었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30年間 公職生活를 해 본 경험으로 보아서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新聞報道에 접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다른 黨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第6共和國이 이제 강력히 推進하고있는 民主發展 그리고 國民和合 여기에 대해서 이 나아가는 進路를 퇴색케하고 우리가 調査하고있는 5共和國 非理에 관한 事項을 모든 國民에게 사실로 인식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經緯는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關聯公務員이 있다면 엄중 問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黨의 立場이고 本委員의 所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4黨幹事에서 現地調査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아침 6時40分경에 道知事가 그 現場을 확인하고 거기 없어진 物件을 도로 갖다놓도록 指示를 해서 일부 갖다 놓았다 하는 것은 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公職에 오래 있었던 知事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良識을 가지고 일을 잘 處理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本委員이 여기서 初選委員으로서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調査活動에 있어서도 事實이 隱蔽되어서도 안되고 縮小되어서도 안될뿐만 아니라 사실이 왜곡되거나 誇張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事件에 대해서는 앞으로 先輩委員들께서 잘 처리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보다 效率的으로 事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고 말하고 있는 用度係長에 대해서 行政的으로나 혹은 法에 의해서 措置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의 上司가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더 效率的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금방 金東周委員님께서 말씀하시기를 地方費가 한 푼도 안들어 갔다고 했는데 地方費가 들어간 것이 사실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豫算書를 안 보았

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支出決議書에 地方費는 어느 科目에서 나간다 하는 科目이 있습니다마는 그 科目이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보아서…… 차차 調査할 것이니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그날 文知事가 주변에 있는 住民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用途變更을 했노라 하는데는 전부 다 했노라 한 것인지 일부만 한 것도 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다음에 상세히 調査해보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調査事項은 빨리 빨리 좀 진척이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朴錫武委員 말씀하세요.

○朴錫武委員 朴錫武委員입니다.

4黨幹事들이 什器移動의 報道를 보고 그 報道內容의 事實與否를 확인하기 위해서 現場에 가서 확인하고 온 내용을 저희 委員會에서 報告를 했습니다.

그 報告를 접해보고 또 그 의심나는 것들을 여러 委員들이 質問을 통해서 그동안 報道되었던 내용에 크게 差異가 없다는 것들이 지금 證明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證明된 사실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會計課 車種은 用度係長 單獨의 판단으로는 그러한 什器를 移動할 수 없으리라는 판단이 지금 저희 委員會에서는 거의 확인을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會計課의 課長도 있는 것이고 課長 위에는 局長이 있고 局長 위에는 知事が 있고 知事 위에는 長官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88年3月28日 內務部長官의 指示公文에 의해서 결국 上部 許可없이 現場의 모든 保存物을 移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指示公文이 있었다면 결국 이 知事は 用度係長이라는 末端 公務員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지만 知事 自體도 長官 許可없이 長官의 公文을 받고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用度係長은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것은 事理上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문제가 世間에 報道가 되어가지고 社會的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內務部는 분명히 自體的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調査를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판단을 저희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指示公文을 내렸던 內務部長官 또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內務部 自體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어느 정도 調査했으리라는 그러한 추측을 저희들은 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한 時間이라도 빨리 內務部長官을 本委員會에 出席시켜서 이 經緯를 명확하게 따지는 것만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문제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正式으로 內務部長官이 빠른 時日內에 저희 委員會에 와서 質疑에 答辯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正式으로 本委員會에 內務部 長官의 出席을 勸誘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徐廷華委員 말씀하세요.

○徐廷華委員 우리 同僚委員인 金東周委員께서 全南知事 官舍에 갔을 때 發言內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速記士가 따라 갔는가 혹은 速記된 내용을 지금 가져 오라고 해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 速記士가 과연 正式 國會速記士가 가서 제대로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發言한 내용을 뻔 것인지 여기에 지금 金東周委員께서 發言하신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資料要請만 있습니다 資料要請으로 地方費와 國費가 차지하는 比率 資料要請을 한 것외에는 다른 사실이 여기에 記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全南知事가 명확하게 僞證을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저로서는 다시한번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오늘 아침 日刊新聞에 났읍니다마는 新聞에 난 내용가지고 과연 누구를 어떻게 處罰하고 해야 될 것이냐?

우리 調査委員會가 그래도 國政調査委員會인데 調査委員會가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이 그렇다면 處罰하든가 어떤 方法이든 다 좋습니다 다만 新聞內容 가지고 그대로 여기에서 決定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調査委員會의

權威나 또는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가벼운 處理가 아닌가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異議를 提起하면서 끝내겠습니다.

○金東周委員 저는 이야기가 분명히 知事에게 제가 速記錄에도 國會速記錄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붙었습니다. 地方費支出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다음에 委員長이 방금 民主正義黨의 金重權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委員長의 해명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나 하면 우리 4黨幹事가 어떤 節次上은 우리가 생략하고라도 갔다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委員들이 黨을 초월해서 우리가 報告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故意性이 있다는 結論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確定的이 아닙니까? 그러면 4黨이 같이 갔던 그것도 지금 현재 異議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는 우리가 참 곤란하지요.

○金炫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發言權을 얻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녀온 사람으로서 明確性을 짚어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發言을 합니다.

분명히 新民主共和黨 幹事로 갔던 金炫입니다.

그 사람들이 첫날 도착했을때 궁색한 변명은 物品을 옮기게 된 것은 88年3月29日 날 짜 內務部長官 對外秘에 의한 指針에 의해서 物件을 옮길 수 있었다고 報告를 했습니다 그날은 物品이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公文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보고도 별로 찾지를 못 했어요 그 다음 날 다시 우리가 8時에 들어가서 報告를 받다가 이 公文을 보고서 쪽 읽었더니 어느 公文에 의해서 그러나 그러니까 全國 貴賓室 및 什器類管理改善指針 해 가지고 가項 方針에 의해서 貴賓室 및 什器類를 施設主 재량에 의해서 開放 및 활용을 해라 하는 항목이라고 道知事가 報告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 뒤 조금 지나서 다시 本委員이 그러면 知事는 나項과 다

項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해서 나項과 다項을 知事가 읽어 보시오 했습니다.

그 나項과 다項을 읽어 드리면 잘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압니다 가項에는 조금 아까 읽어드린 대로 施設主 재량에 의해서 開放 및 활용해도 좋다고 되어 있지만 나項 大統領 專用으로 별도 施設된 일부 施設은 非開放해라 하고 나項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다項에 가보면 開放 貴賓室使用 必要時 大統領 警護室에서 施設主와 事前協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나項과 다項을 보면 開放되는 것도 大統領 警護室에서 施設主와 事前協助하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나項 같은 것은 그나마 중요한 그 現況이 밑에 나와서 公館 여섯군데는 그나마 조건없는 非開放으로 되어 있습니다하고 지적을 했던 바 知事 대답은 默默無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事項으로 볼 적에 다녀온 저로서는 일개 用度係長이 任意的으로 움직일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이렇게 하시지요.

調査報告는 이제 質疑 答辯 다 하셨으니까 특별한 우리 委員들의 異議가 없으면 委員會로서 正式接受을 하고 그 다음에 處理方案에 대해서는 이제 平和民主黨의 朴錫武委員께서는 內務部長官 出席 動議要請을 지금 하고 있고 또 金東周委員께서도 그와 비슷한 發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慣例, 조금 歷史가 생기니까 慣例가 이 動議成立을 먼저 해 놓으니까 혹시 또 他黨에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會議은 어쨌든 原則대로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원래 動議정도 나오면 停會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意見調整도 좀 하고 화장실에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接受를 正式으로 하고 停會 이후에 다시..... 일단 報告書부터 먼저 接受합시다.

여러분 좋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接受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動議案은 停會後에 成立시키도록 하

고 일단 20分정도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9時38分 會議中止)

(20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基澤 늦어서 죄송합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朴錫武委員께서 光州事件調査에 關係해서 內務部長官을 本委員會에 出席시키자는 動議要請이 있었습니다.

제가 停會 직전에 양해를 구하기를 動議成立은 언제든지 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停會를 하고 난 후에 다시 動議與否를 議論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停會 도중에 與野 그리고 各黨間에 光州調査報告를 접수하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處理方案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意見交換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意見を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錫武委員이 이 動議案에 대해서 이것을 續開 이후에 成立을 시켜야만 되겠는데 다른 특별한 異議가 있는지 없는지 듣고 싶어서입니다.

○金重禧委員 動議案이 成立이 되었습니까?

○委員長 李基澤 지금 成立을 안 시킨 애매한 상태에 있습니다. 動議案을 成立시키기 전에 議事進行을 조금 開陳하고 난 후에 成立시켜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입니다.

張慶宇委員 말씀하세요.

○張慶宇委員 방금 委員長께서 말씀하시다시피 動議의 成立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動議成立 전에 마침 本件에 關係해가지고 各黨代表로서 現地에 出張을 다녀왔던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저 나름대로의 見解를 잠시 辟略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4黨의 代表들이 다녀와서 調査報告書가 방금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을 代表해서 金炫委員께서 報告를 하시는 내용을 저도 傾聽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그 내용자체에 좀더 깊이있는 대목대목을 아마 지켜보셨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본래 이 調査特別委員會가 이 문제를 調査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루반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여덟분의 관계된 證言도 청취도 하고 本人들의 陳述書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견한 것은 用度係長의 獨自의인 판단과 本人의 指示에 의해서 일정한 物動量이 움직여졌다 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調査를 하고 돌아 왔던 결과를 報告를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 報告를 接受받은 우리 委員會가 좀더 미진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한 調査가 필요하다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더 本會議에 證言을 더 필요한 사람을 채택을 한다는지 여러가지 節次方法을 택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地方財産의 管理責任은 地方長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光州市에 있는 全南道知事公館의 管理責任者는 현재 道知事인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道知事가 지금 저희들 앞에 와서 미흡했던 부분을 證言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의 방법도 채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內務部長官을 불러서 여기에서 자체적인 어떤 調査의 報告를 받겠다 하는 것은 우리 調査委員會의 權限이라고 그럴까 우리 스스로의 權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따라서 우리 委員會가 이미 新聞報道에 난 그 사실을 확인한 자체가 미흡했다고 그러면 더 小委員會를 구성한다든지 기타 방법에 의해서 본질을 더 파악하는데 우리가 주력을 해야지 우리 委員會 자체가 스스로 調査할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을 오히려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內務部長官 불러서 內務部長官 당신이 자체 調査한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앞으로 우리 調査委員會가 무엇을 調査하겠다는 거냐 그런 無能을 드러내는 立場이 아니냐 하는 생각마저 들면서 오히려 動議 成立以前에 다시한번 우리 現場에 대한 여러가지 物件의 移動이나 隱蔽事實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報告書에도 말씀을 이미 올렸습니까라는 분명히 用度係長 自身이 몇 가지의 物件을 스스로의 判斷에 의해서 移動했다고 하지만 實質의인 面에 있어서 과연 그 本人이 그러한 貴賓室의 物件을

자의대로 움직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疑心이 간다 하는 報告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하루반동안 있으면서도 같이 갔던 同僚委員들께서도 다른 提報者나 다른 證人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읍니다.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시점까지도 하등의 재보라든지 證人을 발견치 못했기 때문에 서글프게도 방금 報告드린 그러한 상황에 그쳤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루반만의 상황을 가지고 충분한 과연 調査가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委員들께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더 이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 關係長官의 출석을 요구하든지 또는 만 證人의 채택을 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柔性佑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기에 대해서 약간 제가 異議가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가 있지만 今年 3月25日 內務部長官의 指示公文에 의해서 儀典上 필요하기 때문에 公館의 여러가지 물건들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현행대로 유지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왔고 이것은 道知事나 그 이하의 管理責任者들은 이 명령을 지켜야 할 것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內務部長官의 허락이 없이는 公館을 현상이외로 변형시켜서는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用度係長 單獨으로 이 公館의 什器를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內務部長官의 출석을 지금 요구하느냐 하면 內務部長官의 지시없이는 그러한 물건들의 반출이라든지 은폐가 불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內務部長官이 출석해서 저기에 대한 명쾌한 答辯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르는 것이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 외에 여러가지 또 점검을 함께 해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內務部長官이 솔직하게 答辯을 해 줌으로써 훨씬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타 道知事라든지 그 이하의 이 本件과 관

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이 의견을 제시하리라고 믿고 필요에 따라서 證人으로서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張慶亨委員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梁性佑委員께서 內務部長官이 許可를 하면 보일 수가 있다 또는 內務部長官의 許可없이 일체의 거기의 물건이나 이런 것을 이동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정구한 이 서류는 딴 서류가 아니고 적어도 지난 大統領選舉가 끝나고 난 이래 이런 과거 5共和國 시절에 특별히 保安도 되고 여러가지 폐단이 있었던 專用貴賓室에 대한 이용을 보다 더 公共人에게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내려진 公文입니다. 이 취지가...

따라서 여기도 보면 貴賓室및什器類管理改善指針移牒通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 金炫委員이 앞의 부분은 안 읽으셨는데 보통사람시대의 개막에 즈음해서 全國 貴賓室 및 什器類使用을 自律化함으로써 大統領의 善政意志에 부응하고 使用者 및 施設主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 公文自體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開放貴賓室使用 必要時는 大統領警護室에 施設協議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內務部長官이 스스로 이것을 開放해라 움직이지 마라 하는 그 명령을 하는 公文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예. 朴委員...

○朴錫武委員 張委員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長官을 가능하면 이런 特委에 출석을 안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 같지마는 長官이 이 特委에 나오는 것을 꺼릴 정도로 이 特委를 운영한다면 사실 特委의 存在意義가 없습니다. 아니 道知事나 用度係長은 長官의 指示 命命을 따르는 것이고 또 이 長官은 道知事 이하의 全 公務員들을 指揮 監督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知事나 用途係長 등등의 그 關係人士들을 이렇게 調査해 봤는데 특별하게 어떤 그들의 단독으로 했다라든가 어떻다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런 저희들이 報告를 들었고 그것을 報告를 접수를 했고 추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上官을 결국 불려서 그 上官의 指示는 어떻게 했고 이것을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 特委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 上官을 부르는 것은 이 特委의 基本調査活動의 하나인 것이고 또 아까번에 제가 動議案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실록 長官에게 굳이 이런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內務部 자체에서도 調査했을 것은 우리가 추측이 된다 그런 점에서 內務部 자체로서 調査된 내용은 무엇인가를 묻기 위한 하나의 그것을 전제로 해서 長官을 부르자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런 件까지 추가해서 質問을 하기 위해서라도 長官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動議案을 이야기 하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문제를 더 길게 거론해 봤자 지금 興黨 쪽으로 보면 長官을 가능하면 안 나오도록 하고 오히려 知事나 더 밑에 사람 불려가지고 調査를 해보자 그런데 이 特委의 성격상으로 볼때 出席要求는 우리가 國務委員에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知事나 기타의 下級公務員은 證人으로서 밖에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證人問題는 또 長官을 불려서 결국 미진하다면 證人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證人을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動議案을 다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長官을 出席하는 문제에 대한 저의 動議를 委員長께서는 성립시켜 주기를 다시 요구합니다.

○梁性佑委員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報告書의 맨 마지막 事項입니다.

이것은 4黨 調査團이 함께 합의해서 기록한 것이고 이것이 접수되어서 추인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을 한 문장 읽겠습니다.

“非開放 施設로 指定된 6個의 公館에 대하여는 1988年3月25日字 內務部長官의 指示 公文에 의하더라도 儀典上 必須場所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維持管理하라는 것이었으므로 누구도 公館의 什器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搬出行爲가 있었음은 搬出日時가 어떤 간에 1988年8月11일에

調査特委의 調査活動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內務部長官을 출석시켜서 內務部長官의 분명한 해명을 國民들로 하여금 듣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特委活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東周委員 補充發言을 하겠습니다.

방금 公文을 보니까 內務部長官의 指示가 아닙니다. 對外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88年度 3月25日날 行政 02340-21 題目은 貴賓室및什器類管理改善指針移牒通報 이런데 I에 보면 大統領警護室保安 02340-252 83年3月 21日號와 關聯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엄밀히 따지면 大統領警護室의 指示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일개 係長이 일개 道知事가 어떻게 이 公文에 의하면 大統領警護室의 公文 命令을 접수할 해가지고 이것을 內務部長官이 各 公館에 있는 知事에게 하달한 文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엄청난 이런 짓을 어떻게 일개 係長이 했다 지금 知事가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常識의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방금 朴委員께서 動議案을 내셨는데 당연히 自發的으로라도 內務部長官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全國民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全國民의 輿論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이럴 때 全南道知事나 關係 公務員들에 대해서 內務部長官이 빨리 어떤 措置를 하든지 表彰을 주든지 勳章을 주든지 해야지 이 特委를 어찌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그 動議案에 再請합니다.

○孫周愷委員 설사 이것이 內務部長官의 指示가 아니고 혹은 道知事가 모르고 일개 末端 係長이 獨斷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內務部長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부끄럽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가 엄청나게 져야 할 책임을 國民한테 겸허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國會議員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보통 行政府에서 國會議員을 輕視하는 動向은 작금 20餘年 동안 軍事獨裁 政權의 遺物인데 지금 李春九長官은 우리 特委의 決

議가 없다 하더라도 작금 言論에 비친 것이나 혹은 國民들에게 알려져 있는 全南道知事의 이러한 事件은 國民들이 대단히 公憤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나와서라도 國民에게 해명도 하고 疏明도 하고 또 정중하게 사과도 하고 자기가 指揮 監督해야 할 末端 係長이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절히 느끼고서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李春九長官이나 소위 몇몇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長官들의 思考方式을 모르겠어. 작금 報道에 의하면 이것은 완전히 道伯의 편인지 末端 係長 하나만 犧牲羊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李春九長官의 心底意를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見一이면 知一이라고 지금 5共非理特委가 처음부터 부딪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歷史에 큰 挑戰을 하는 거야. 더우기 그 사람도 부끄럽게 알아야 하는 것은 初代 淨化委員會 委員長으로서 本委員會에서 討議를 해야 하고 조사해야 할 三濟教育問題의 張本人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나와서 國民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疏明도 해야지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 輿團에 계신 몇몇 委員들이나 個人的인 친분이나 여러가지 因果로 인해서 차마 李長官을 特委에 나오게 하는 것이 거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小보다는 大를 위해서 黨보다는 國家와 民族을 위해서도 이것은 明明白白하게 우리 朴錫武委員이 提案한 動議를 滿場一致로 贊成해서 李春九長官을 이 자리에 나와서 꼭 그런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辛再基委員 辛再基委員입니다.

이제 몇 분 委員님께서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內務部長官이 사과하는 문제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면은 무엇이나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문제는……

○李敬載委員 사과가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치더라도……

○辛再基委員 아니 이제 孫委員님께서 사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討議를 하고 있는

것은 全南에 있는 道知事 官舍 地方靑瓦를라고 아까 이야기도 했읍니다마는 그 調查過程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調查를 직접 現地에 나가서 이 委員會가 調查를 기위 실시를 개시했다 하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기왕에 우리가 調查를 한번 시작을 했으면 委員會 나름대로 어떤 結論이 날 때까지는 調查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4黨 代表議員들께서 두번째 가서가지고 報告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調查가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미진한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가 기왕에 調查를 시작해 놓고 調查 도중에 內務部長官을 불러가지고 아까 朴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기들 自體 調查 結果를 좀 들여보자 하는 것은 이 委員會의 權威上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調查이니까 또 現地까지 나갔던 調查이니까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더 調查를 실시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의 이 委員會의 結論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內務部長官을 우선 부를 것이 아니라 기왕 시작한 現地 調查를 좀더 미진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별도 調查班을 편성하든가 사실상 지난 번에 數十名이 調查를 한다 하고 現地에 나가서 하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調查班을 별도로 좀 少數로 편성을 해가지고 나가서 다시 調查를 하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現地 調查도 미흡한데 內務部長官부터 부른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忠兆委員 金忠兆委員입니다.

本 特委會 新參한 委員으로서 그 동안의 調查過程을 제대로 간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共非理 氷山の 一角이라고 할 수 있는 光州에 設置됐던 地方靑瓦를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현재 內務部長官의 出席을 요구하는 動議를 성립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贊反對論이 진행되고 있

읍니다.

불초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5共이 出發한 것은 이미 우리가 다 26年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간을 겪어 왔읍니다마는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極과 極의 對峙原理가 지배하고 있는 軍事統治 바로 그것의 연장이었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狀況에 있어서 26年 동안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이와 같은 上命下服의 絶對的인 服從關係에 훈련되어 있는 地方 行政官僚들이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行政政府의 意識 自體가 上官의 지시나 또는 어떠한 특별한 명령없이 獨自的으로 道知事나 또는 그 이하의 線에서 어떤 일을 처리했으리라고 결단코 생각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5共 調查特委에서 겪어 왔읍니다마는 靑南臺 調查가 방해를 받았든지 또는 政府 當局에 요구를 했던 5共非理에 관련된 資料提出을 거부하고 있는 작금의 政府의 태도로 보아서라도 이것은 분명코 道知事나 그 이하의 線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당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코 여기에는 道知事 이상의 內務部長官을 비롯한 또한 여타의 上級 當路者들이 必然的으로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心證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心證이 具體化되고 또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內務部長官의 出席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각도에서 이것이 調查와 동떨어진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調查의 확충으로서 調查의 일환으로서 內務部長官은 必然的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연루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 心證이 확인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밝히는 절차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忠兆委員 意見開陳을 끝으로 해서 會議進行을 좀 이상하게 했읍니다마는 그래도 動議를 하신 朴錫武委員께서 이해를 해주어서 動議成立이전에 이 案件에 대한 討論이 너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일단 內務長官 出席에 대한 動議를 正式으

로 하였고 여기에 대한 再請등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動議案이 正式으로 成立이 된 것을 宣布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이전에 討論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더 討論할 것이 있겠습니까?

○李聖浩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基澤 예. 李聖浩委員 討論하세요.

○李聖浩委員 저는 이 內務部長官出席要求에 대해서 시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光州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新聞에 報道되자 우리 5共非理特委의 4黨代表를 보낸 措置는 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泊2日의 期間으로 가서 조사를 했고 또 그 조사를 한 결과를 報告를 接受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傾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조사의 순서의 문제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報告書에 보면 옮겼다 갖다가 놓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用度係長의 獨自인 행위나 아니면 그 이상의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발견을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분명한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을 옮겼고 다시 갖다가 놓았던 行爲者인 用度係長에 대해서는 자기가 自認을 했고 또 道知事는 關聯者로서 그 지시한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調查團 네 분이 가셔서 명백한 獨自인 행위나 아니면 지시에 의한 關聯者가 있느냐를 발견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調查結果報告書에서도 나타났듯이 調查結果가 미진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감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대로 자기들이 獨自인 조사를 했을 때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委員會는 特別調查委員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조사를 다시 실시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내용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왕 네 분이 가서 모든

證據도 保存해 놓았고 사실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그 行爲者인 用度係長과 그 이상의 어떤 關聯與否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이 조사의 순서상으로 보아서 우리 委員會가 먼저 우리 조사가 미진하다고 볼 때 또 조사의 내용이 不充分하다고 볼 때 다시 委員會같은 형태가 되든가 아니면 또 關聯者인 道知事나 또는 그 行爲者인 用度係長을 우리 委員會에 證人으로 채택해서 여기서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事實糾明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內務部의 調查問題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충분히 어떠한 調查行爲도 안하고 또 충분한 결론도 안 내리고 內務部의 조사를 먼저 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듣기 위해서 內務部長官을 먼저 出席시킨다고 하는 것은 前後가 바뀐 것이 아니겠느냐 조사의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시각에서 內務部長官이 出席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時期的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盧武鉉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基澤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盧武鉉委員입니다.

지금 民主黨委員님들께서 本 調查特委에서 調查機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는 것이 걸맞다 그리고 조사에 관한 사항을 內務部調查에 의존하는 것은 권위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闡明하고자 합니다.

本 調查特委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은 5共和國時代에 있어서의 權力에 관련된 諸般非理를 調查하는 것이 本 調查의 對象이고 지금 여기서 조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조사의 절차에 있어서 방해행위가 있었느냐 없느냐 그리고 누구에 의한 것이냐 하는 節次上的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많은 방해행위 또는 장애의 사유가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本 特委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도 行政府에서 명백한 犯法行爲라든지 그런 것일 경우에 內務部 또는 檢察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措置할 수 있는 것을 굳이 本 特委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조사에 걸려서 진짜 조사해야 될 本 調査對象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證言·鑑定에 관한法律에 의하면 이미 조사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또 그리고 본인의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當該 係長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搜查가 착수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4黨의 幹事들이 조사한 결과에도 많은 의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의문점에 관해서 搜查에 책임있는 機關이 본인의 진술여부에 불구하고 搜查를 더 깊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公務上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또 거기에는 政治的인 책임도 따라야 되고 일정한 行政上的의 책임은 어떻게 추궁해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本 特委가 꼭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완벽하게 조사한 다음에 內務部長官의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그래서 다시 內務部長官에게 마지막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 出席을 요구해야 된다 그런 순서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內務部長官에게 조사결과를 물어보는 것도 매우 能率的인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徐廷華委員 委員長!

○委員長 李基澤 예. 말씀하세요.

○徐廷華委員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討論을 하고 있는 것은 네 분의 調査委員들이 지난번에 주말을 이용해서 光州에 다녀 온 結果報告를 들으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內務部長官을 이 자리에 出席시키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野黨委員님들께서 많은 분이 얘기하셨지마는 5共和國非理에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關係長官이 있다면 이 자리에 불러서 저희나 野黨이나 똑같이 얼마든지 불러서 얘기하고 證人으로 채택도 하고 質疑도 하고 할 용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報告書

끝의 綜合意見部分을 보면은 그 네 분의 調査結果의 끝에 가서 이것이 用度係長의 單獨所行보다는 知事의 지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調査結果報告가 知事와 用度係長을 넘어서는 調査結果報告가 아닌가 그러면 內務長官 關聯事項은 內務長官이 그렇게 지시를 내려 보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하는 애기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아까 얘기가 있었음니다마는 순서로 보아서나 우선 아무리 이 調査特委가 바쁘다고 그래도 순서를 밟아서 또는 人權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과 報告에 나타난 그 두 사람을 우선 불러서 물어 보든가 아니면 또 調査委員會를 더 만들어서 다시한번 계속해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든가 하면서 아! 內務部長官이 개입될 可能性이 농후하다 이런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內務部長官도 부르고 다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調査委員會가 조금전에 權威나 尊嚴性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음니다마는 최소한도 이 調査委員會가 10餘年만에 만들어져서 처음 出帆하고 있는데 調査委員會에서 활동하다가 그게 여하튼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關係機關에서 調査한 것을 결과를 여기서 報告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추궁하는 것 보다는 이 調査委員會에서 손을 댈 것이니까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쯤은 더 확인해 가지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長官 關聯嫌疑가 짙다고 그러면 그때 불러도 늦은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요 또한 이 委員會가 능률과 또는 國民이 여망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非理 44件에 대해서 빨리 國民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러한 任務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內務部長官을 여기서 불러야 될 것이냐 또한 얼마 놓아 두어야 될 것이냐 자꾸 이렇게 節次나 이런 문제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순서를 밟아 간다면 調査委員會를 다시 한번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더 補強한다든가 해서 能率的으로 빨리 該當者를 우선 調査를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이 委員會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俞仁泳委員** 죄송합니다. 初選議員으로서 특히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와서 저는 可及的이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몇 시간 참다가 아마 답답한 나머지 간단히 한 말씀 先輩委員님께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누가 指示를 했느냐 뭐 犯人을 잡는 이런 장소 같습니다. 제가 調査를 직접 가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아까 4黨 幹事들께서 한 調査報告書에 의하면 틀림없이 用度係長이 혼자 한 행위다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用度係長 혼자서 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또 한가닥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調査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內務部長官이 만약에 그런 指示를 했다손치면 內務部長官이 일개 用度係長한테 직접 電話를 걸어서 그런 指示를 할 수도 없고 아마 道知事나 또 그 이하 副知事 뭐 企劃室長 또 局長 課長 뭐 이렇게 系統이 있는데 아마 제일 높은 사람 道知事한테 指示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文道知事께서도 그런 指示도 받지 않았고 자기도 자기 部下한테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앞뒤가 지금 현재는 확실히 맞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 만약에 李春九 內務部長官이 만의 하나라도 그런 指示를 했다손치면 公職社會에서의 信義랄까 그 組織社會에 있는 道知事나 일개 係長이 사실은 內務部長官이 시켰다 이렇게 자수를 하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자리는 제가 初選委員으로서 특히 이 자리에 와서 느낀 것은 調査를 위한 진지한 對話는 멀리 가버리고 어떤 長官이나 또는 政治攻勢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제가 잠깐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평잡는 게 매라고 調査를 해서 犯人 누구인가를 잡아내면 되지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지 구태여 內務部長官을 나와라 들어가라 한다는 것은 좀 빠른 일이 아닌가 우선 제 소견같아서 죽어도 자기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小委員會를 만들어서 그 用度係長을 다시 한 번 다루어 보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用度係長 위에는 課長이 있고 課長 위에는 局長이 있고 局長 위에는 室長이 있고 副知事이고 뭐 知事가 있고 그 위에 또 長官이 있는데 한 7階段 8階段을 넘어서 질서없이 우선 長官만 잡아다가 족치겠다 또 한 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民主主義社會를 부르짖는 우리 第13代 國會議員의 자세인가 저는 이렇게도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先輩되시는 여러분들께서 政治攻勢를 좀 그만하시고 허심탄회하게 진짜 犯人을 잡는 데 열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鄭一永委員** 議事進行發言을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停會를 통해서까지 그동안 많은 質疑 應答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도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委員長님이 動議案을 成立을 하셔서 채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質疑 應答을 하는 식으로 해서 개진하고 계신데 좀더 效率的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委員長님께서 빨리 이 문제를 決定을 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만 討論終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動議가 成立되기 전에 충분히 贊反에 관한 討論을 하였고 또 動議가 成立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安秉珪委員만 오늘 發言을 안하시겠다고 하고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安委員 하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安秉珪委員** 저는 이번에 우리 特委運管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을 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날 우리가 우리 特委 31名이라고 하는 全人員이 현장을 답사하고 또 調査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資料要請을 많이 하고 했지만 實質的으로 備品臺帳을 근거해서 備品이 제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하나 하나 확인을 하지 못한 채 사실은 日程에

쫓겨 가지고 우리 일들을 마치고 某日刊紙에 이 문제에 관해서 當時 特委委員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全羅南道 道廳에서 大統領 專用室 備品一部를 疏開시켰다가 原狀回復했다고 하지만 原狀回復되었는지 또 되었다고 하더라도 特委委員이 調査活動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갖다놓았는지 또 현재 다른 곳에 옮겨져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某新聞記事를 근거로 해가지고 緊急幹事會議를 소집하고 또 4黨을 대표해서 幹事 4명이 가서 調査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報告를 받았읍니다마는 그 報告에 의하면 적어도 당시에 옮겼다가 原狀回復된 것은 사실이지만 옮긴 사람은 全羅南道 道廳에 있는 用度係長의 獨自의 행위였다 그 사실만을 證言을 듣고 확인했지만 調査團 의견으로는 調査報告書 결론에 보면 다만 用度係長 單獨行爲일 수 있겠느냐 하는 疑問點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調査報告를 받고 그 處理問題를 놓고 얘기하는 가운데 內務部長官을 出席시켜서 報告를 받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일부 野黨委員들은 심지어 內務部長官이 지시하지 않고 이와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비약적인 論理까지 전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4명이 갔기 때문에 보다 진지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고 우리 特委 全體會議가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좋은 資料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아까 몇몇 委員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한번 이 문제에 관한 책임추궁을 하고 보다 더 심도 깊은 調査를 하기 위해서 調査班을 구성해서 파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만일 우리 全體會議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다른 委員들이 말씀 하셨읍니다마는 全羅南道 道知事나 用度係長을 일단은 불러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個人的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內務部長官을 證人으로서 우리가 出席시킨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本件에 대한 自體監査 報告나 듣기 위해서 長官을 出席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의 政治攻勢를 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 特委에서 이미 어떤

결론을 想定해 놓고 그 결론으로 유도하기 위한 會議進行方法이 아니겠느냐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金忠兆委員께서 적어도 道知事 그 이상에서 이번과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을 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個人的으로 하신 말씀일 것이고 오늘 이런 動議案을 이 자리에서 하나 處理하기에 앞서서 다시한번 野黨側에서는 철회를 하고 우리 全體 委員會에서 보다 더 심도있는 이 문제 本件에 관한 調査를 더욱 진행시키기 위해서 現場에 特委委員들을 調査班을 파견할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金 炫委員 金 炫委員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시 調査班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자세히 본 바로는 현 단계로는 調査班이 내려가서 더 이상의 것은 얻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 드린다면 이 用度係長이 振興院 總務課長室에 놓았다 倉庫에 놓았다 했는데 묘하게 振興院 總務課長은 3日前에 年暇를 맡아서 그 당일날 또 年暇를 맡아서 없고 振興院 責任者인 院長도 그날 年暇 그 다음날 年暇…… 院長도 그 필요한 날짜 이들은 年暇가 되어있고 그 總務課長室에 두었다는 그 主務責任者인 課長도 묘하게 夏季 休暇次 3日 年暇를 다녀온 뒤 8日날부터 10日까지 3日間 上記事由로 夏季 休暇를 다녀왔음 그다음 11日날 夏季 休暇를 갔다 온 뒤에 家事整理를 目的으로 하루 年暇를 냈읍니다. 總務課長은 그래서 本人은 본 바가 없다 年暇中이라 모릅니다 이렇게 答辯이 되었고 또 하나 振興院長은 묘하게 10日날 하루 業務次 現地 확인차 나갔다 12日날도 業務 해서…… 중요한 날짜에 振興院長과 해당 長인 總務課長은 현장에 없었다는 정도입니다.

이 집만 보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군데 다섯 군데로 물건이 車까지 동원되어서 했을 때에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냐 그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 內務部長官 出席 要求를 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한데 해당 公務員들이 전부 다 年暇年暇

해서 年暇狀이 막 나올 정도이고 대개가 公務員社會에서 振興院長이 年暇를 내면 그 다음 차석인 總務課長은 남아 있는 법인데 모하게 일개 係長에게 전부 다 위임을 하고 두 분 다 年暇中이라는 묘한 확인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림없이 빨리 討議를 중단해 주시고 종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張慶宇委員 農村振興院長은 年暇가 아닙니다. 年暇가 아니고 現場出張中이고…… 아까 말씀 시정하세요.

그러니까 院長은 出張中이고 總務課長이 年暇中입니다. 院長도 年暇中인데 總務課長도 年暇中…… 이것이 아닙니다. 시정하세요.

○委員長 李基澤 崔戊龍委員이 發言申請을 했습니다.

○崔戊龍委員 조용하게 존경하는 委員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고 마지막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決議가 된 사실을 놓고 기왕이면 民主的으로 各 委員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을 委員長님께서 굳이 마지막까지 듣고자 하시는 의사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마는 원래 우리 特委의 성격이 어떠한 搜查官의 搜查行爲하고 엄연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 委員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배후가 아니고 우리 前後에 國民의 이름이라는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 이 特委構成 자체가 원래 國民의 衆論에 의해서 의혹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構成이 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調查對象項目으로 설정된 數十種의 項目들이 과연 사실 우리 委員 각자 각자가 그러한 의혹된 면을 연구한 項目들이냐 거의 7·80%는 어쩌면 더 되는 나머지의 項目들이 國民의 이름으로 이것이 告發되었고 이것이 社會性을 띤 어떤 보도에 의해서 각색이 되었고 그 眞否를 허구냐 아니면 사실이나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調查項目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연구를 해 봤을 때 현재 물건을 감추었다는 행위 한 가지를 놓고 이것이 用度

係長의 個人的인 처사나 아니면 어떠한 上部의 지시에 의한 행위나 하는 것을 따지시는 모양인데 사실 國民과 더불어 저희들은 用度係長님의 과잉충성에 의한 個人的인 행위라고 그렇게 규정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이 잘못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또 長官님의 出席을 놓고 굉장히 어려운 분을 모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한 나라의 內務責任을 지고 계신 분을 그러한 의혹된 일이 발생했을 때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극히 民主的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제일 최종결정을 지을 수 있는 責任者를 모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民主時代에 즈음해서 물론 각자각자 인격을 존중한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한 인격을 존중할수록 더욱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모신다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어떤 決議를 우리가 지은 마당에 더 이상 각자각자의 생각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內務部長官의 出席要求를 분명히 결정지은 마당에 더 이상 意見開陳은 종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重權委員 本 特委의 本質 使命 原論的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民主主義時代에 逆行될 수도 없고 또 무거운 使命感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本 特委에서 內務部長官을 出席시키자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根本的으로 反對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實體的인 眞實發見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內務部長官의 出席을 議決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眞實發見을 위해서 첩경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迂迴道路를 가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反對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本 委員會가 물론 國會의 한 特委이기 때문에 政治의 場인 것은 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本 委員會는 政治委員會라기 보다는 어떤 實體的인 眞實發見을 위한 司法的인 성격을 띤 中立性을 띤 이런 調查委員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 마다 眞實發見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政治目的 政治攻勢 이것은 어떤일이 있어도 관여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事件을 보더라도 이미 調查班이 任意롭게 4黨幹事間의 협의에 의해서 現場에 내려가서 調查를 했습니다. 또 調查가 미진하다고 하는 報告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調查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現場이 은폐됐다 조작이 됐다 어떤 이동이 있었다 한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 먼저 問議가 되고 調查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行爲者 行爲者가 가장 잘 압니다. 과연 그것이 法 所定の 拘束要件에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는 行爲者를 보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行爲者의 拘束要件 該當性 與否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먼저 1次的이어야 합니다. 當事者의 진술이 토대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證據를 다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證據中에 가장 心證을 형성해 주는 확실한 證據는 直接證據입니다. 거기서 누가 봤느냐 누가 그것을 실지로 보면서 發見했느냐 하는 直接的인 證據를 調查를 통해서 眞實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第3者의 이야기를 들어서 비로소 아는 이런 迂廻的인 方法을 왜 우리 委員會는 애써서 택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眞實發見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本 委員의 생각에 있어서는 어떤 當事者의 진술을 통해서 먼저 事實을 확정해 가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直接的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가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情況 證據를 통해서 또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間接的인 여러가지 「채널」을 통한 證據調查를 통해서 眞實을 발견해가는 이런 것이 참다운 本 調查委員會에 부여된 하나의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면 內務部長官의 경우를 한번 例를 들어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內務部長官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어떤 것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느냐 아까 우리 존경하는 孫周恒委員께서는 말씀합디

다마는 제가 同意하는 部分도 있고 同意되지 않는 部分도 있습니다. 內務部長官이 어떤 眞實發見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언제라도 出席要求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出席要求 이전에 어떤 國政을 책임지고 있는 國務委員으로서 自進해서 이 자리에 와서 궁금증을 풀어 줘야 됩니다. 疑惑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國務委員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本末를 지금 뒤집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眞實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먼저 先行의 일은 하지 않고 後行의 일을 우리들이 자초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眞實을 발견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內務部長官이 이 자리에 와서 眞實發見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때도 가리지 말자 場所도 가림이 없이 언제라도 出席을 요구해서 眞實發見을 위한 그 國務委員의 陳述을 들어보자 나는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反論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調查班이 與野의 合意에 의해서 現場에 가서 調查를 했다 또 報告書 接受했다 그러면 調查班을 다시 만들 필요도 없이 現場에 파견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反論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응의 眞實은 일응의 어떤 이유는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調查班이 現地에 가서 調查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知事든 또 用度係長이든 振興院에 소속되어 있는 關係者들이 陳述했지만 그것은 國政監·調查法에 기한 證言이나 參考人의 陳述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法律的으로 아무런 羈束力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僞證했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할 아무런 資料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知事든 用度係長이든 總務課長이든 이런 當事者든 이 사람을 證人으로도 參考人으로도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宣誓하게 하고 心理的인 羈束力을 주어야 됩니다.

그때 진실한 어떤 陳述을 받아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證據法則인 것입니다.

그래서 本 委員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二重的인 일을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眞實發見을 위해서는 이제는 정식으로 證人으로 또는 參考人으로서 선정해서 이 國會가 議決을 통해서 선정해서 宣誓하게 하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陳述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調査班이든 調査委員會든 小委員會든 구성해서 현장에 接近하면서 현실에 接近하면서 현실을 파악하는 이런 순서를 밟는 것이 나는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또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順理的인 절차를 밟음이 없이 곧장 內務部長官을 出席을 요구한다 國務委員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한다 하는 것은 나는 本末를 뒤집는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本 委員의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內務部長官이 眞實發見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 언제라도 決議를 합시다. 또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民正黨이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民正黨이나 모든 委員들의 경우는 眞實發見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발견을 통해서 잘못이 지적되고 또 虛偽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사람을 問責하고 엄중히 처벌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內務部長官을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本 委員會에 出席要求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這問의 이유로 반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瑋鎬委員 말씀하세요.

○金瑋鎬委員 與黨 先輩 同僚委員들께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들이 비교적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상치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친애하는 金重權幹事께서도 政治攻勢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 안된다 眞實을 밝히는 입장에서 임하는 것이 正道다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全幅的으로 옳은 말씀이올시다.

政策遂行過程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응분의 그 분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만 權力의 不道德性이라든가 道德의 말하자면 瑕疵

라든가 잘못된 것이 國民앞에 밝혀졌을 경우에는 政權을 내놔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를 시다.

言論의 報道는 國民에 대한 하나의 告發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報道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事案을 놓고 眞實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오해가 쌓터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政府 與黨이 걸잡을 수 없는 그러한 狀況까지 갈 수 밖에 없는 불행한 事態로 豫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光州의 道廳公館의 이 사항에 대해서는 靑瓦臺에서도 이러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세상이 하도 엄청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道知事의 報告는 半信半疑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疑問點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內務部長官을 출석시키자는 것은 하나의 社會正義 具現을 위한 政府와 國會는 하나의 共同體입니다. 서로 補完關係를 維持 管理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 政府도 盧泰愚政權도 國民들이 選擇을 했습니다.

이 13代國會도 國民들이 選擇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政府는 政府 나름대로 機能을 賦與를 했고 國會는 國會 나름대로 우리들한테 權能과 機能을 賦與를 해주었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고 國民들의 疑惑이 생기고 그랬을 때는 相互間에 이것을 밝히는 입장에서 하나의 共同體다 그 말입니다.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側面에서 우리들이 國會次元의 調査가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그러면 政府가 이 分野에 대해서 補完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경우 政府에서 하는 일들이 國民들이 납득하고 說得되지 않는 狀況에서 그쳐졌을 경우에는 國會次元에서 政府의 입장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國民 여러분들 믿어주시오 말이지 이렇게 하고 國會次元에서 政府의 잘한 것을 뒷받침하고 國民들이 誤解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國會의 機能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時間에 이 光州問題는 굉장히 國民들이 疑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內務部長官을 당장에 불러가지고 이

러한 狀況이 되어서 당신의 隸下機關에서 어느 경우는 係長이 했다고 그리고 우리들이 볼 때는 心情的으로 道知事가 했다고 보아지는데 이 地方長官을 監督하고 있는 內務部長官은 이 狀況에 대해서 自體的으로 調査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調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 있으며 아직까지 調査를 착수를 안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長官의 所信과 견해는 어떠냐 말이지…… 이것을 보는 政府의 視角은 어떠냐 하고 長官한테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또 用度係長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用度係長을 指揮 監督하고 있는 道知事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느냐 그 말이야…… 白晝가 되었든지 밤중이 되었든지 大統領이 기거하는 엄청난 施設과 우리들이 잘 保護를 해야 할 그러한 建物입니다. 거기서 「트럭」에다가 物件을 싣고 나가버렸다 아무도 모른다 그 옆에서는 知事가 먹고 자고 한다 말입니다. 家族들 하고… 전혀 나는 몰랐다 나중에 새벽 6時에 보니까 원! 그림이 병풍이 없더라 「텔레비전」이 없더라 그래 原狀시키라고 했다… 이게 國民들한테 남득이 됩니까? 이런 道知事의 진술에 대해서 政府에서는 積極的인 자세로서 이 문제를 調査 착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國民들의 疑惑과 誤解를 풀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國會에 와서 答辯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國會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知事公館에 調査次 나간다는 것이 新聞에 報道가 되었고 세상사람이 다 아는 일입니다. 大田에 됩니까! 飛龍臺지요? 飛龍臺 調査나간다 그 말입니다. 國防部에서 飛龍臺 責任者한테 國會에서 調査 나갈테니까 정중하게 모시고 안내를 해라 말이야…… 또 靑南臺는 靑瓦臺에서 指示가 가가지고 지금 公開할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으니까 절대로 別途指示가 있을 때까지 公開하지 말아라 그런 指示가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못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道知事公館은 內務部長官이 분명히 뭔가 指示를 했을거다 그 말입니다. 與野委員들이 國會決議에 의해서 調査를 나가니까 道知事는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이며 정중하게 안내를 해라 묻는 말에 성실하게 國會議

員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뭔가 指示를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長官을 불러다 놓고 貴下는 지난번에 全體會議에서 光州 調査하러 갔을 때 어떠한 指示를 했느냐 指示를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江 건너 불난 집 보듯이 無關해버렸느냐 전혀 言及을 안했던 것이냐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指示를 했길래 도착직전에 物件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느냐 하는 것도 당연히 國會次元에서 長官한테 물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眞實을 밝혀가지고 전혀 權力에서는 內務部長官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는 心情的이 우리한테 들어야 되고 國民한테 誤解가 풀어졌을 때 國民이 政府를 信賴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런 側面에서 한 것이지 아니 그래 內務部長官을 여기 불러다 놓고 따지는 것이 政治的인 效果가 그렇게 큰 겁니까? 세상에 野黨 國會議員들을 그렇게 밖에 안보는 것입니까?

우리도 愛國하는 데에는 여러분들 못지 않습니다. 社會正義를 구현하는 데에는 어떠한 핍박과 탄압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견고싶은 그러한 哲學과 信念을 갖고 있는 野黨議員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그렇지만 여기 委員長이라든가 先輩들도 荊棘의 가시밭 길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歎苦를 치른 同僚議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糾正부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評價를 받으시고 더 이상이 문제에 대해서는 討論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하고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愛國하는 뜻에서 國民들에게 政府의 신뢰를 회복하는 뜻에서 당당한 國會의 機能과 權能을 國民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長官을 불러가지고 너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長官의 견해는 뭐냐 말이야…… 自體調査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했다고 그러면 內務部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타나있는 것이냐 따지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政治攻勢입니까?

나는 그러한 측면에서 안 보기 때문에 朴錫武委員이 內務部長官 出席을 動議한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더 이상 討論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終結을 지었으면 하는 소

망을委員長에게 말씀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辛再基委員 한 말씀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與黨幹事인신 金重權委員님께서 總括的인 말씀을 하신 것같고 또 金璋鎭 平民黨幹事께서 많은 委員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또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委員長 불찰로 이렇게 會議가 오래 계속될 줄 모르고 참 저녁도 드시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많은 委員들이 지금 討論終結을 해 주었으면 하고 다 바라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는 사실 金璋鎭委員과 거의 동시에 盧武鉉委員도 發言을 申請했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盧武鉉委員께 먼저 發言을 드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辛委員께서 꼭 말씀을... 그러면 盧委員 양해해 주세요.

○盧武鉉委員 討論終結을 안 한다면 發言申請을 한 순서대로 주셔야지요.

○辛再基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異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異議가 있더라도 좀 참읍시다. 또 辛委員께서는 하실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辛再基委員 제가 한 말씀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그러면 辛委員을 마지막 發言으로 해서 討論終結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盧武鉉委員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終結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먼저 申請한 사람이 해야지요. 똑같은 얘기인데...

○辛再基委員 똑같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委員님께서 行政府機能 國會機能을 다 우리 國民들이 주었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討論을 하고 있는 이 事件이 行政府 立場에서 이루어진 事件입니다.

그리고 우리 國民들이 이 事件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行政府의 長官이 나와가지고 사실을 밝히기 보다는 즉 行政府와의 협조관계 보다는 오히려 行政府를 감독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國會가 이것을 처음

부터 끝까지 밝혀야만 우리 國民들의 의혹을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行政府에서 일어난 일을 그 該黨部處의 長을 불러 가지고 그 사람 말하는 것을 國民들이 듣고 의혹을 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國會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진실을 밝히면 의혹을 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機能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우리 國會에 調查 監査機能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會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會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件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서 진실을 우리 國民들에게 밝혀야만 우리 國民들이 이 件에 대해서는 확실히 납득이 가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內務部長官을 부를 것이 아니라 調查班을 편성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長時間 民主的方式에 의해서 內務部長官出席要求의 件에 대한 贊反對論이 있었습니다. 贊成하시는 先輩 同僚委員 또 反對하시는 先輩 同僚委員 다 일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會議는 여기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表決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討論은 일단 終結하겠습니다.

저기 民正黨의 院內總務께서 밤늦게 우리 特委때문에 이렇게 와 계십니다마는 內務部長官出席要求動議에 대해서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表決을 참 안하고 우리가 대화와 타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表決할 것을 宣布할 수밖에 없습니다.

國會法 第114條 規定에 따라서 內務部長官出席要求動議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委員은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反對하시는 委員은 起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委員 27人중 贊成 17人 反對 10人으로서 內務部長官出席要求動議가 可決되었음을 宣

布합니다.

○盧武鉉委員 다음 議案에 들어가기 전에 動議案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에.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民主黨의 盧武鉉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통과된 案件의 贊反討論 과정에서 民正黨 委員님들께서 진실을 발견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當該 行爲者와 直近 上級機關인 道知事를 먼저 조사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전에 通過된 內務部長官의 出席要求는 그 나름대로 可決되었고 또 분명히 政治的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과는 별개로 民正黨에서 調查를 성실히 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울러서 出席要求는 기간이 그렇게 멀지않아도 되지마는 證人을 부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기에 行爲者인 擔當係長과 道知事를 證人으로 채택해서 本 委員會에서 진실을 밝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證人採擇에 관한 動議案을 提出합니다

○金重權委員 재일 처음으로 內務部長官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순서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그래서...

○盧武鉉委員 發言하는 중입니다.

初選議員이라 주문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서 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취지는 분명합니다.

道知事와 用度係長을 이 委員會에 불러서 證人으로 채택해서 證人으로 審問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李基澤 再請있습니까?

(「再請이요」하는 이 있음)

三請있습니까?

(「三請이요」하는 이 있음)

○金重權委員 우리 委員會를 이렇게 할 것입니까?

○盧武鉉委員 그러면 다시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內務部長官의 出席을 요구해서 묻는 것은 시일이 내일이라도 좋고 모래라도 좋고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證人을 採擇해서 묻는 데는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까지 꼭 民正黨의 委員님들께서 많은 말씀

을 하셨듯이 內務部長官을 불러서 묻는 것은 政治的 攻勢에 불과하지 實際的 眞實을 발견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平民黨의 우리 金瑋鎭委員을 비롯해서 內務部長官의 出席은 政治攻勢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宜寧에서 馬巡警의 銃器事故가 났을 때 內務部長官이 역시 國會에서 政治的 責任을 추궁당해야 했고 아주 오래된 기억입니다마는 鐵海 앞바다에서 YKL이라는 조그마한 배가 침몰했을 때 거기에 海軍參謀總長이 引責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國會에서 하고 있는 活動을 정면으로 방해한 이와같은 사태가 왜 政治的인 사태가 아닙니까? 政治的인 사태에 대해서 長官을 불러서 그 經緯를 따지고 거기에 대한 政治的 責任을 물어가는 것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어서 저는 贊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것은 또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動議案을 提出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論理的으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委員長이 잠깐 解明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內務部長官 出席動議가 可決되어서 사실 그 이후에는 全南知事 저도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關聯係長인 公務員이 證人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動議를 성립을 시켰습니다만 盧武鉉委員 어떻습니까? 사실 이 委員長 생각으로 는요 折衷案을 내놓겠는데 內務部長官을 일단 出席시켜가지고 우리가 光州事件에 대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난 연후에 知事나 그 關係 公務員을 證人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왜 그러나 하면 우리 日程은 말이지요 물론 全體 委員會에서 갑자기 이렇게 動議하고 可決될 수도 있습니다. 原則的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짧은 전통입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表決이나 이 可決같은 것을 그래도 幹事

會議에서 여러분들 싫어하는 委員님들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뜻을 들여가면서 사실 배고픈데 밤 10時까지 시간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꼭 자랑스러운 慣例라고는 할 수 없지마는 그 나름대로 慣例일 수도 있으니가 盧委員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必要時에 內務部長官 出席以後에 必要時에 우리가 부르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盧委員 감사합니다.

그러면 內務部長官 出席日字에 대해서는 우리 委員會 全體日程을 봐가면서 이 委員長과 4黨 幹事들에게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은 다음 會議에 上程키로 하고 오늘은 散會를 宣布합니다.

(22時2分 散會)

○出席委員

李基澤	金仁泳	金重權
朴進球	徐廷華	辛再基
安秉珪	李相得	李聖浩
李應善	張慶宇	黃潤鎰
金璋鎭	金忠兆	朴錫武
孫周恒	梁性佑	李敬載
趙昇衡	姜信玉	金東圭
金東周	金奉祚	盧武鉉
金鍾植	金炫	鄭一永
崔戊龍		

○委員아닌出席議員

金潤煥 崔洛道 朴寬用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趙 在 錫
立 法 審 議 官 朴 柱 一

【報告事項】

○通 報

非理調查關聯者出國禁止要請

8月5日 當 委員會에서 非理調查關聯者 出國禁止를 요청한 데 대해 8月13日 法務部長官으로부터 出國禁止要請한 16人에 대하여 全基煥外 13人에 대하여는 出國禁止措置하고 前大統領인 全斗煥 및 同婦人 李順子에 대하여는 前職大統領에 대한 禮遇를 고려 出國禁止措置하지 아니 하기로 하였다는 回信이 있었음.

資料提出現況

8月16日 政務長官으로부터 當 委員會의 調查要請事項資料에 대한 그 提出期間을 8月17日에서 8月20日까지 3日間 延期해 달라는 建議가 왔으며 8月23日 현재 資料提出現況은 總 26個 部處中 18個 部處에서 提出되었음.

○特別委員變更

特別委員會	舊 委 員	新 委 員	交涉團體
第5共和國에 있어서의 政治權力型 非理調查特別委員會	金重緯	金仁泳	民主正義黨
	梁慶子	辛再基	"
	李相河	李相得	"
	李廷武	李應善	"
	金奉旭	金忠兆	平和民主黨
	朴 實	朴錫武	"
	林春元	梁性佑	"
	許萬基	李敬載	"

(8月23日字)